일제잔재 문화자원 기록화와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제출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뢰한

『일제잔재 문화자원 기록화와 대응전략』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대전세종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이재민	연구책임	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한상헌	공동연구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실
안용준	공동연구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최성은	공동연구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윤설민	공동연구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미래기획실
송양호	공동연구	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유용환	공동연구	비상임연구원	산택인문연구소
민성훈	공동연구	비상임연구원	대덕구청
박한결	연구지원	조사원	대덕문화원
이승환	연구지원	조사원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차례

1장 연구개요 ····· 3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5
3. 연구범위와 방법 ····· 6
4. 연구의 분석 틀 ····· 10

2장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존 양상 ····· 15

1. 수탈과 개발의 잔재 ····· 16
2. 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 23
3. 일상과 정착의 잔재 ····· 32

3장 세종시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 ····· 41

1. 저항과 항거 ····· 43
2. 배신과 변절로서 대응 ····· 56

4장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의 청산·활용 ····· 79

1. 일제강점기 자원 청산 ····· 80
2. 일제강점기 자원 활용 ····· 85

5장 연구요약과 정책건의 ····· 103

1. 연구요약 ····· 103
2. 정책건의 ····· 106

참고문헌 ····· 108

부 록 ····· 111

표 차례

[표 2-1] 세종지역 신사 5기의 흔적 ····· 4··· 2
[표 3-1] 연기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공훈록 ····· 3····· 4
[표 3-2] 세종지역에서 태어난 반민족행위자 ····· 6····· 5
[표 3-3] 과거 세종지역에서 활동했던 반민족행위자 ····· 5····· 6
[표 4-1] '일제잔재 청산' 조례제정 현황 ····· 0···· 8
[표 5-1] 세종지역 일제 잔재 현황 ····· 401
[표 5-2] 세종지역 일제 잔재 현황 ····· 50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방법 ····· 7

<그림 1-2> 연구의 분석 틀 ····· 10

<그림 2-1>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존그림 ····· 15

<그림 2-2> 지도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잔재 ····· 15

<그림 2-3> 조치원 오봉산 중턱에 위치한 사방사업기념비 ····· 17

<그림 2-4> 부강면 등곡리 중석광산 외부 ····· 18

<그림 2-5> 부강면 등곡리 중석광산 내부 ····· 18

<그림 2-6> 부강면 금호리 중석광산(냉천굴가든) ····· 19

<그림 2-7> 연서면 기룡리 금광굴 ····· 19

<그림 2-8> 현재 경부선 위치와 폐전철 터널의 위치 비교 ····· 20

<그림 2-9> 부강면 노호리 폐전철 터널 ····· 21

<그림 2-10> 연기향토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천년농장비석과 탁본본 ····· 22

<그림 2-11> 세종지역 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 23

<그림 2-12> 1933년 교토신문 발행 『日本社寺大觀 神社篇』 에 수록된 연기신사 본전 및 배전의 모습, (우) 1941년 발행된 岩下傳四郎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連盟에 수록된 연기신사(燕岐神社) ····· 52

<그림 2-13> 연기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현재의 충령탑 ····· 25

<그림 2-14> 전의면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신사의 위치와 계단 ····· 26

<그림 2-15> 부강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신사주유소 ····· 27

<그림 2-16> 과거 금남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 27

<그림 2-17> 소정공립심상소학교 졸업사진(1938~1941년 사이) ····· 28

<그림 2-18> 과거 연남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좌)황국신민서사비와, (우)탁본본 ····· 30

<그림 2-19> 과거 연서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성인용 황국신민서사의 비 ····· 30

<그림 2-20> 금남초등학교의 해방기념비(과거 황국신민서사비) ····· 31

<그림 2-21> 부강면 적산가옥(오인수 가옥) ····· 33

<그림 2-22> 이 연구에서 다루는 조치원의 적산가옥 ····· 4····· 3
<그림 2-23> 충현로 102-4 내·외부 모습 ····· 5····· 3
<그림 2-24> 새내1길 8 외부 모습 ····· 5···· 3
<그림 2-25> 조치원 10길 42 외부 모습 ····· 6···· 3
<그림 2-26> 조치원로 25 외부 ····· 6··· 3
<그림 3-1>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 ····· 1····· 4
<그림 3-2> 독립운동가, 반민족행위자 관련 자원 ····· 1····· 4
<그림 3-3> 세종지역 독립운동가 자원 존재 양상 ····· 5····· 4
<그림 3-4> 애국지사추모비 정면 모습 ····· 6····· 4
<그림 3-5> (좌)홍일섭 선생 알림판, (우)비석 ····· 9····· 4
<그림 3-6> 연서면 고복리 봉서재의 홍일섭이 쓴 현판 ····· 0····· 5
<그림 3-7> 조치원읍사무소 2층 회의실 (좌)맹의섭 사진, (우)추운실기 ····· 0····· 5
<그림 3-8> (좌)맹의섭 선생 묘소 위치, (우) 맹의섭 선생 묘소 ····· 1····· 5
<그림 3-9> (좌)이광희, 이장희 묘소·비석(전의면 신정리), (우) 애국지사 알림판 ····1····· 5
<그림 3-10> (좌)추득천 묘소 전경, (우)묘비 ····· 2····· 5
<그림 3-11> 황갑수 추모비 ····· 3··· 5
<그림 3-12> (좌)가네코후미코 생가터, (우) 묘소 전경(문경에 소재) ····· 3····· 5
<그림 3-13> (좌)3.1운동 만세 상징조형물, (우)안내판 ····· 4····· 5
<그림 3-14> 소정면 매봉산 전경 ····· 5···· 5
<그림 3-15> (좌)영세불망비와 (우)탁본본 ····· 5····· 7
<그림 3-16> (좌)선정비, (우)탁본본 ····· 5····· 7
<그림 3-17> 송덕비 이전 기록비 ····· 6···· 7
<그림 4-1> 일제강점기 자원의 청산과 활용방안 ····· 9····· 7
<그림 4-2> (좌)서울마루 전경, (우)서울마루에 보존된 조선총독부 체신국 콘크리트1기둥 ····· 8
<그림 4-3> (좌)통감관저터, (우)거꾸로 세운 동상 ····· 2····· 8
<그림 4-4>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 활용 분류 ····· 5····· 8
<그림 4-5> 세종시 행복나들이 누리집 화면 ····· 6····· 8
<그림 4-6> 이치피디아 누리집 화면 ····· 7····· 8
<그림 4-7> (좌)세종시립민속박물관, (우)박연문화관 ····· 8····· 8
<그림 4-8> 비물질 정거장 전시회 모습 ····· 9····· 8

<그림 4-9> (좌)읍내길 지금道 포스터, (우)전시모습 ····· 9
<그림 4-10> (좌)황국신민서사지주, (우)안내판 ····· 9
<그림 4-11> (좌)공연 모습, (우)시놉시스 ····· 9
<그림 4-12> 장욱진 미디어 아트 개최 당시 모습 ····· 9
<그림 4-13> 대동풀빵여지도 모습 ····· 9
<그림 4-14> 일제강점기 주재소 건물을 활용한 '다방' 카페(연서면 소재) ····· 9
<그림 4-15> 소제동 골목길과 카페 ····· 9
<그림 4-16> 대전아담한투어 진행 모습 ····· 9
<그림 4-17>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 9
<그림 4-18> (좌)광주신사 계단, (우)미당 서정주 동상 주변의 단죄문 ····· 1
<그림 4-19> (좌)전임김학응지사대학이전송공비와 (우)안내판 ····· 1
<그림 5-1>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 ····· 1
<그림 5-2> 최근에 멸실된 식산은행(조치원역) 직원관사 ····· 1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3. 연구범위와 방법
4. 연구의 분석 틀

1장 연구개요

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1. 식민통치에 의한 일제 잔재의 형성과 청산 노력

○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60여 년의 세월 동안 일제 침탈에 의한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일제의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잔존하고 있음

–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일제의 언어와 생활양식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문화는 해방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과 삶터 곳곳에 잔존 하여 남아있음

○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자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조직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세력 및 당시 집권당의 방해 공작으로 제대로 활동도 진행하지 못하고 해체되었음

– 더욱이 국제적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한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를 통해 지속된 국토분단의 상황에서 과거를 청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함

○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 스며든 일재 잔재와 반민족행위자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발간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2019년 74주년 광복절 행사를 의미 있게 치르고자 하였으나, 기념식에서 친일작곡가의 노래가 연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에 세종시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친일잔재 청산 TF를 조직하였으며,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2021년 기획과제 형식으로 '세종시 일제강점기 문화자원의 잔존 양상과 활용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2. 왜, 이 연구가 필요한가?

○ '일제 잔재'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건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에 의해 조성된 물리적·심리적인 잔존물임

– 이는 우리의 일상과 관습 속에서 인식되지 못한 채 존재하여 시민 생활을 병들게 하고 있음

– 과거에는 부정적이고 청산 대상으로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용인되는 경향임

○ 일제 잔재 연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비록 일제에 의해 형성되기는 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소비론적 관점에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활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있음

–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재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문화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며, 도시경관 정체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심리적 자산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결속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가 있음

– 공간스토리텔링·장소 마케팅과 같은 도시공간 '가공'의 기법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세종시는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신도시가 가질 수 있는 '역사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편입 지역으로서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정책의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음

2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1. 연구목적

○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헌·현장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잔재'를 구명하고, 역사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세종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반민족행위자를 고찰하고자 함

– 세종지역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잔재를 파악하고, 현재 세종시에 전승되는 자원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세종시에 잔존 하는 일제강점기 자원(잔재)의 양상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함

⑴ **수탈과 개발의 잔재** :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유적의 잔존물

⑵ **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 일제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식민 정신을 이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유적의 잔존물

⑶ **일상과 정착의 잔재** :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조성된 유적의 잔존물

○ 세종시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 양상

⑴ **저항과 항거로서 대응** : 일제의 식민과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양상으로 투쟁 등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 고찰

⑵ **변절과 부역으로서 대응** : 일제의 식민과 폭거에 변절과 부역으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 고찰

○ 일제강점기 자원의 청산과 활용방안

⑴ 활용의 관점에서 논의 : 아카이빙·교육·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

⑵ 순화와 청산 관점에서 논의 : 우리말로 순화 또는 청산 방안 논의

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용어의 개념과 정의

○ 잔재(殘滓)의 사전적인 개념

– 협의적 개념으로는 '쓰고 남은 찌꺼기'라는 의미를 지님

– 광의적 개념으로는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찌꺼기'를 의미하는 일상으로의 범위가 확대됨

○ 일제 잔재의 개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⑴ 반민족행위를 했던 인물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경우 '친일파'로 통칭하기도 하며, 그들의 기득권이 되었던 물리적 기반 일체를 의미함

⑵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일제에 의해 조성된 물리적·심리적 잔존물(survivals)을 의미함[1)]

1)한상범, 21세기 민족문제와 일제잔재 : 친일파의 지배구조 청산, 철학과현실 53호, 2002, 125~133.

2.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1) 시간적 범위

○ 연구 수행기간: 2021.12.20~2022.07.19.

○ 적용 기간: 근대 침탈기부터 1945년 해방

2) 공간적 범위

○ 세종시 신도시권, 읍면지역 권 등 전역을 포괄함

3. 연구방법



<그림 1-1> 연구방법

1) 질적연구 방법론의 적용

○ 이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음

- 질적연구방법론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사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자료수집 도구로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이 있음
-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를 출범하면서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게 되

었고, 신도시가 역사문화의 단절과 생성이 이루어졌다면 읍면지역은 역사적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임

- 이에 세종지역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일제강점기의 기억과 기록 등 경험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연구참여자에 의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로 세종시에서 나타나는 일제강점기 유·무형의 문화자원 잔재를 탐구하고, 이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참여자 및 전문인력의 자문

❍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연구에서는 세종지역에서 일제강점기 기억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

- 임영수 관장 (연기향토박물관)
- 이상우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 김진형 연구위원(경남연구원)
- 곽창록위원장((전)김종오장군선양위원회)
- 이규상 관장(삼버들작은도서관, (전)부용면장)
- 송두범연구위원 ((전)충남연구원)
- 김훈영대표 (유명카센타)
- 이화종 어르신 (이장희, 이광희의 손자)
- 윤은실총무장의(전의향교)
- 이공호회장 (세종시광복회)
- 황우성소장 (세종시향토사연구소)
- 윤철원행정사((전) 조치원읍장, 전의면장)
- 임재일소장 (사회문화연구소 오늘)
- 이장민팀장 (대덕문화전당)
- 임헌량단장 (오페라 한음)
- 장동우대표, 주성빈이사 (PAL문화유산센터)
- 김민석 전임연구교수(충남대학교)
- 정제호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 홍근진부국장 (뉴스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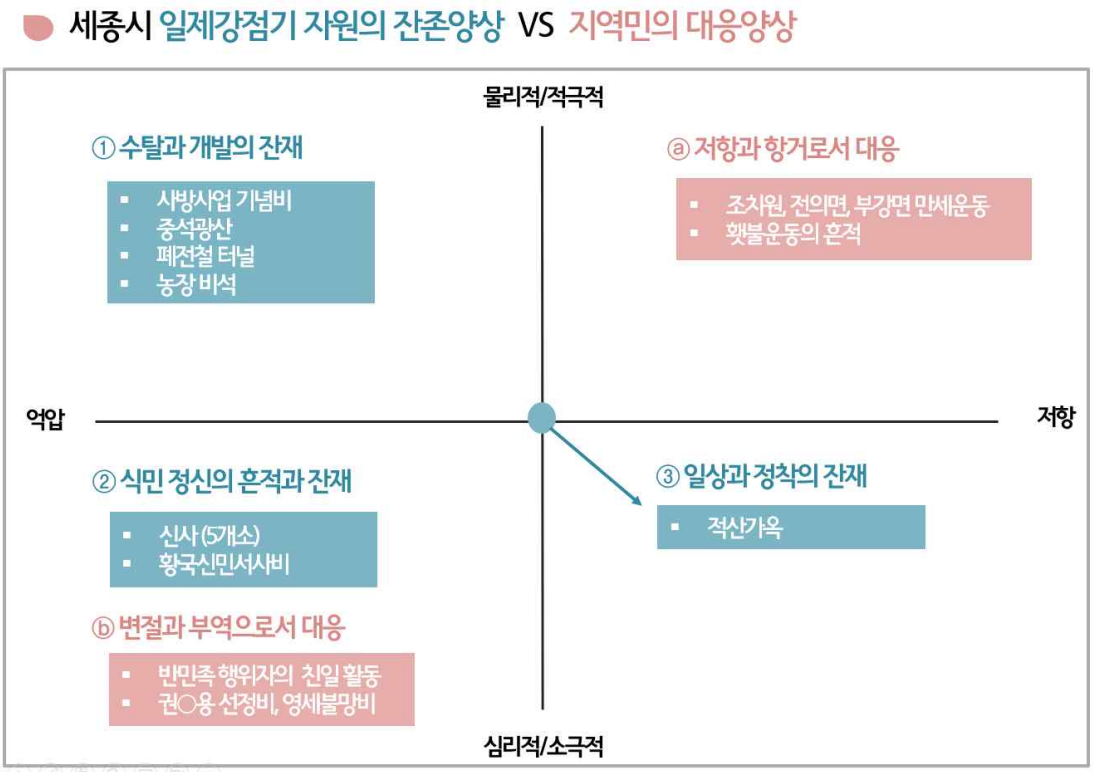
– 민경희 관장(소정면작은도서관/소정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송아람대표 (극단 세종)

3) 문헌연구를 통한 자료수집

- ❍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반민족행위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2009)』에 기반함
- ❍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

4절 연구의 분석 틀



<그림 1-2> 연구의 분석 틀

○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존양상과 대응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를 구현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함

– 가로축의 좌측 부분은 일제의 '억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 우측 부분은 지역민들의 대응하는 '저항'을 의미함

– 세로축은 일제잔재의 존재양상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의 축이 '물리적·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 음(–)의 축은 '심리적·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냄

○ 세종시에 잔존 하는 일제강점기 자원(잔재)의 양상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함

⑴ 수탈과 개발의 잔재 : 일제는 물리적인 수탈과 개발을 통해 식민지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잔재를 '수탈과 개발'의 잔재로 분류하였음

⑵ 식민정신의 흔적과 잔재 : 일제는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심리적인 억압과 수탈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잔재를 '식민정신의 흔적'과 잔재로 분류하였음

⑶ 일상과 정착의 잔재 : 일제는 대한민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많은 일본인들을 거주

시켰으며, 이에 대한 잔재를 ‘일상과 정착’으로 분류하였음

❍ 세종시 일제강점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민은 물리적 투쟁과 애국계몽 운동으로서 저항을 하였으나, 일부는 변절과 부역으로서 반민족행위를 하기도 하였음

⑴ 저항과 항거로서 대응 : 일제의 식민과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양상으로 물리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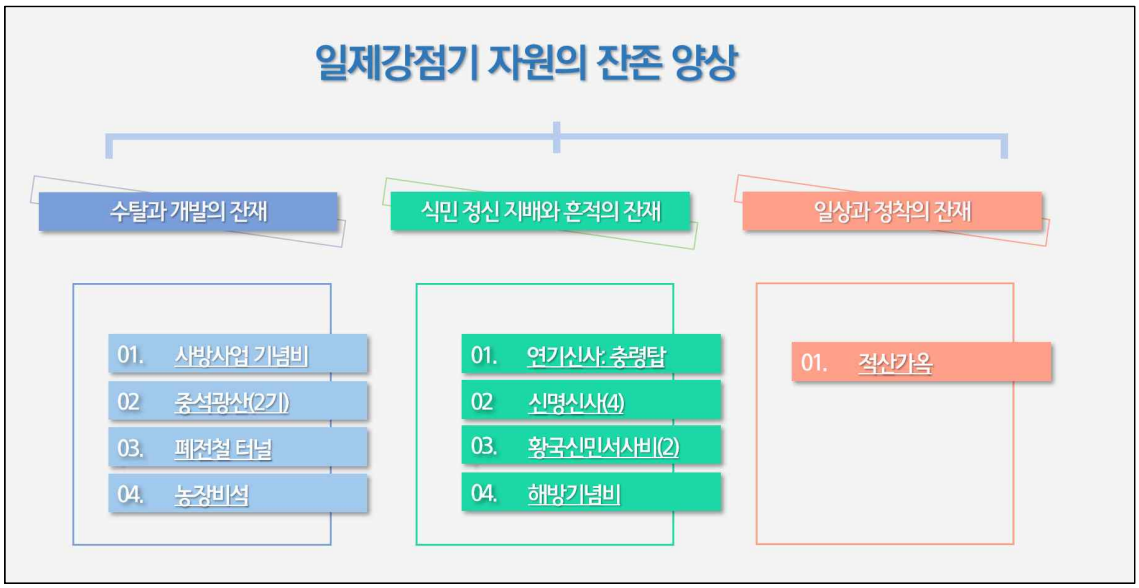
⑵ 변절과 부역으로서 대응 : 일제의 식민과 폭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킴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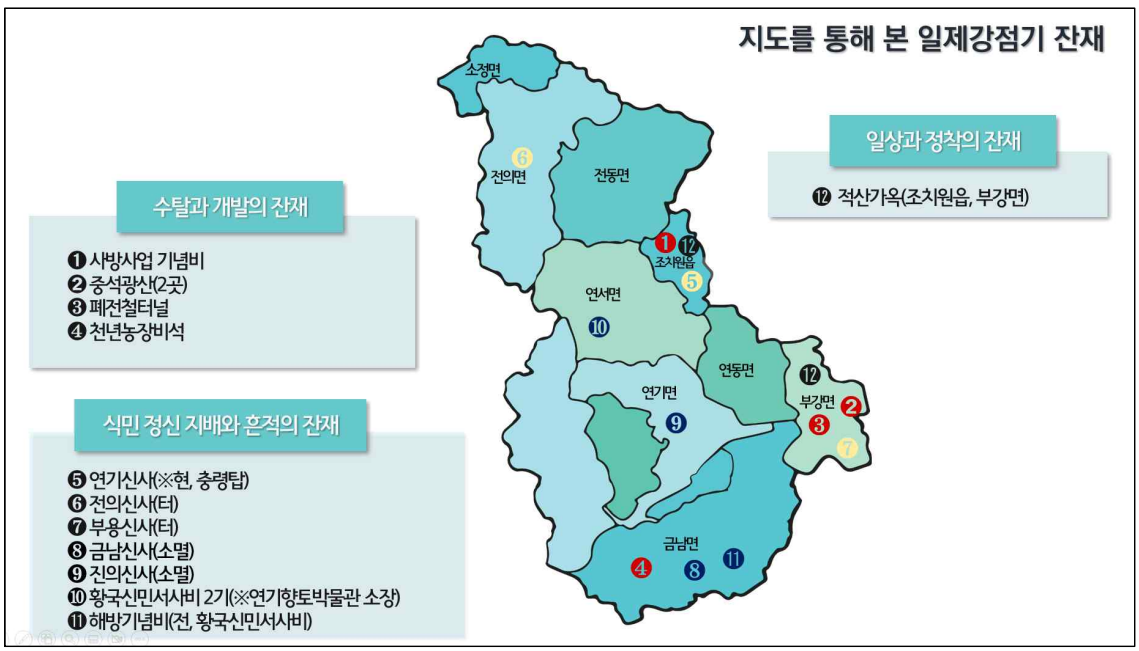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존 양상

1. 수탈과 개발의 잔재
2. 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3. 일상과 정착의 잔재

2장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존 양상



<그림 2-1>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존그림



<그림 2-2> 지도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잔재

1절 수탈과 개발의 잔재

1. 사방사업기념비(조치원읍 소재)

- ❍ 사방공사는 수력 및 풍력에 의해 토사. 자갈이 이동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공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
- ❍ 조선 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장마가 큰 피해가 심각하여, 토사 유출로 산지 지형이 변형된 곳에 흙을 보태 원래 지형을 복원하는 보토(補土) 작업을 시행하였음
  - 이 작업은 무너진 산지의 풍수 지세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보토한 곳 위에 떼를 심거나 축대를 쌓아 토사의 재유출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방공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사방사업을 진행했으나, 이 시기는 대개 '풍치조성'을 위한 공사였으며, 1919년 조선사방사업령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음
- ❍ 사방사업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발의도도 있었겠지만, 수탈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 사방사업은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지역 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침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비에서 염출하는 것은 물론, 임야 소유자에게 나무 심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기도 함[2)]
  - 이에 면지역에서는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부역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역에 못 나가는 주민들은 부역환산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음
  - 일본인 토목청부업자들은 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해 많은 이윤을 남김
- ❍ 세종지역의 조치원에도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오봉산 중턱에 위치하며, 아직도 글귀가 그대로 남아있음
  - 비석의 정면 '昭和蔘年'이라고 새겨져 있음
  - '소화(昭和)'는 일본에서 사용한 연호(年號)로서,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이르는 시기를 가리키며, 소화 3년은 1928년을 의미함
  - 따라서 조치원 오봉산 사방사업은 1920년대 중반 시작하여 후반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최병택, 일제 강점기 사방사업의 전개와 그 문제점, 역사교육, 150호, 2019, p.189~220.






<그림 2-3> 조치원 오봉산 중턱에 위치한 사방사업기념비

2. 중석광산 2기(부강면 소재)

○ 세종시 부강면 지역에는 중석(텅스텐)을 채굴하기 위한 광굴이 다수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 연구에서는 등곡리에 잔존 하는 중석 광산 1기와 금호리에 잔존 하는 광산 1기를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하였음

1) 부강면 등곡리 중석광산

○ 부강면 등곡리에 위치한 중석(텅스텐)광산으로 현재에도 형태가 고스란히 전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2-4> 부강면 등곡리 중석광산 외부




<그림 2-5> 부강면 등곡리 중석광산 내부

2) 부강면 금호리 중석광산

- ❍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에 위치한 중석광산으로, 현재에도 형태가 고스란히 전하고 있음
- ❍ 이 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청풍광산이라고 하며, 당신 내선광산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되었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음
- ❍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18년까지 '냉천굴가든'이라는 백숙 전문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현재에는 잠겨져 있어 내부로 진입은 불가함



<그림 2-6> 부강면 금호리 중석광산(냉천굴가든)

3) 연서면 기룡리 금광굴

○ 현재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는 금광굴이 전하고 있음



<그림 2-7> 연서면 기룡리 금광굴

3. 폐전철터널

1) 부강면 노호리 폐전철 경부선



<그림 2-8> 현재 경부선 위치와 폐전철 터널의 위치 비교

- 과거 1904년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를 위의 그림(폐전철 터널 지점)과 같이 통과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 선로 이동에 의해 '현재의 경부선' 위치로 옮겨져 왔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선로는 폐전철로가 되었으며, 부강면 노호리에는 이 구간의 터널이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있음
- 2018년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재활공간 발굴 프로젝트 [비물질 정거장]'이라는 전시콘텐츠를 기획·운영함




<그림 2-9> 부강면 노호리 폐전철 터널

4. 농장 비석

- ❍ 일제강점기 1920년대는 자본주의와 문화정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로 한반도의 지역사회에서는 농장, 금융조합, 경공업으로 나타났음
- ❍ 세종지역에도 금융조합과 식산은행 등 금융업과 관련한 회사, 제사공장·농장 등 형태의 회사가 설립되었음
- ❍ 특히 세종의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복숭아가 일제강점기 유입되어 재배되어 복숭아 산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농장들이 설립되었음

1) 천년농장비석(현재 연기향토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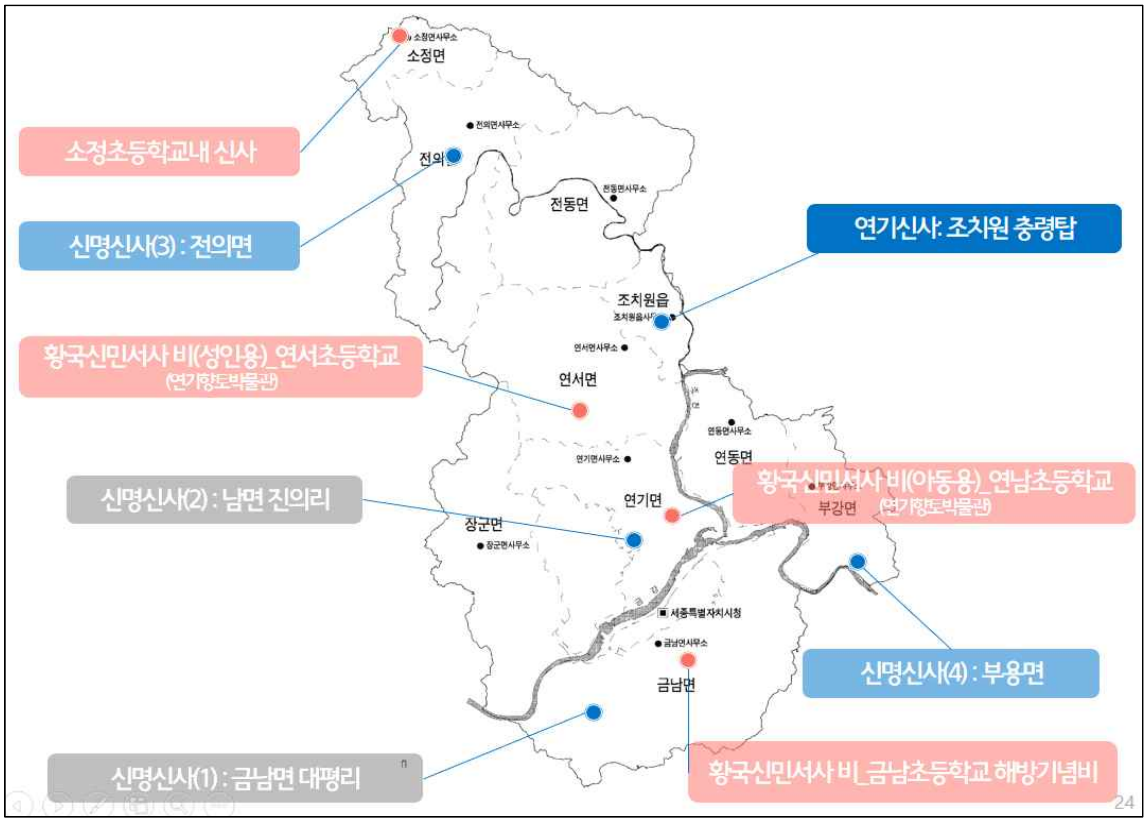
- ❍ 과거 1915년 세종지역 금남면 대평리에는 '천년농장'이 설립되었음
  - 자본금은 20만 원이었으며 소유주는 일본인이었음
  -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부근 농민들이 전부 채무자, 소작인이 되었음
  - 회사 설립 이후부터 조선 농민들을 착취한 것으로 이름이 났음[3)]
  - 해방 이후 귀속되었으며, 현재 비석이 연기향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3) 「순회탐방(삼백칠십이) 진보는 속도이나 기실일인촌」(2), 1927년 7월 14일자, 『동아일보』.



<그림 2-10> 연기향토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천년농장비석과 탁본본

2절 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그림 2-11> 세종지역 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 일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물리적인 식민지배를 하기 위해선 '철도'를 준설 하였고, 심리적·정신적 지배를 위해서는 '신사(紳士)'를 건립하였음

○ 이처럼 신사는 철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기념하고, 식민지 경영 전략에 따라 지배기로서 상징물을 연계하는 시각적이고도 상징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함

○ 세종지역에도 총 다섯 기의 신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조치원읍 침산공원 현재의 충령탑은 과거 '연기신사'로, 이 지역의 중심적인 신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임
- 작은 규모의 신사를 신명신사(神明神祠)라 했는데, 이 같은 신사가 총 4기(부강면, (과거)남면, 금남면, 전의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일제는 정신적인 지배를 위한 '신사'외에도, 민족말살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황국신민서사비'를 세워 이의 암송을 강요하였으며, 세종지역에도 총 3기의 황국신민서사비의 흔적이 전하고 있음

1. 신사(5기)의 흔적

○ 과거 세종지역에 확인되는 신사는 총 5기로, 연기신사를 비롯하여 4기의 신명신사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1] 세종지역 신사 5기의 흔적

명칭	주소	창립허가일	잔존 상황
연기신사	연기군 조치원면 조치원리	1921.4.14	현재 충령탑
신명신사 (대평신사)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927.8.18	현재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신명신사 (진의신사)	연기군 남면 진의리	1920.1.26	전월산 인근으로 추정,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소실
신명신사	연기군 전의면	1942.4.20	유영카센타 인근 뒷 구릉
신명신사 (부강신사)	청주군 부용면 부강리	1922.5.22	현재 신사주유소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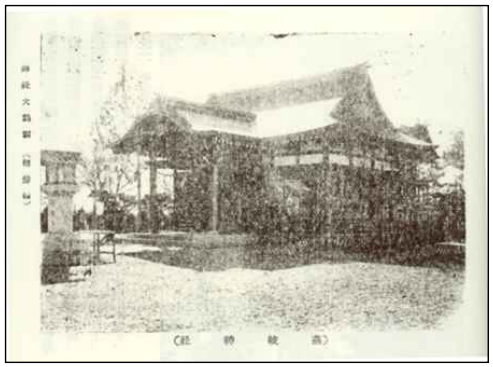
1) 연기신사

○ 현재는 세종시 출신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충령탑'이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이곳은 연기신사가 있던 자리였음

○ 신사를 조성하면서 침산공원의 주변 산지 정리를 병행하고 경부선 철도를 놓기 위한 초석이 마련됨

○ 주민들에 의하면 해방 이후에도 당분간 존속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출처 : 가나가와대 21세기 COE 프로그램 신사 데이터베이스

<그림 2-12> 1933년 교토신문 발행 『日本社寺大観 神社篇』 에 수록된 연기신사 본전 및 배전의 모습, (우) 1941년 발행된 岩下傳四郎 『大陸神社大観』 大陸神道連盟에 수록된 연기신사(燕岐神社)





<그림 2-13> 연기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현재의 충령탑

2) 전의면 신명신사

- ❍ 전의면 유명카센타(운주산로 1144) 뒤편 구릉에 있는 신명신사의 흔적 중 일부가 아직 잔존 하여 남아있음
- ❍ 주민들은 과거 1970년대 정도까지 어린이들에게 놀이터였다고 구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단과 석축 일부가 전하고 있음







<그림 2-14> 전의면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신사의 위치와 계단

3) 부강면 신명신사[4)]

- ○ 과거 충북 청주 부강지역에도 신명신사가 현재 '신사주유소'에 위치하였다고 전하고 있음
- ○ 현재는 복개되었지만, 과거에 흘렀던 도랑을 '신사도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신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4) 부강신사는『부산일보』1939년 9월21일 '부강신사 8주년 기념제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으며, 부강지역의 주민들도 신사가 있었다는 구술을 확보하였음



<그림 2-15> 부강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신사주유소

4) 금남면 신명신사

○ 현재 세종시 금남면 세종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장소에 신명신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음



<그림 2-16> 과거 금남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5) (구) 연기군 남면 진의리 신명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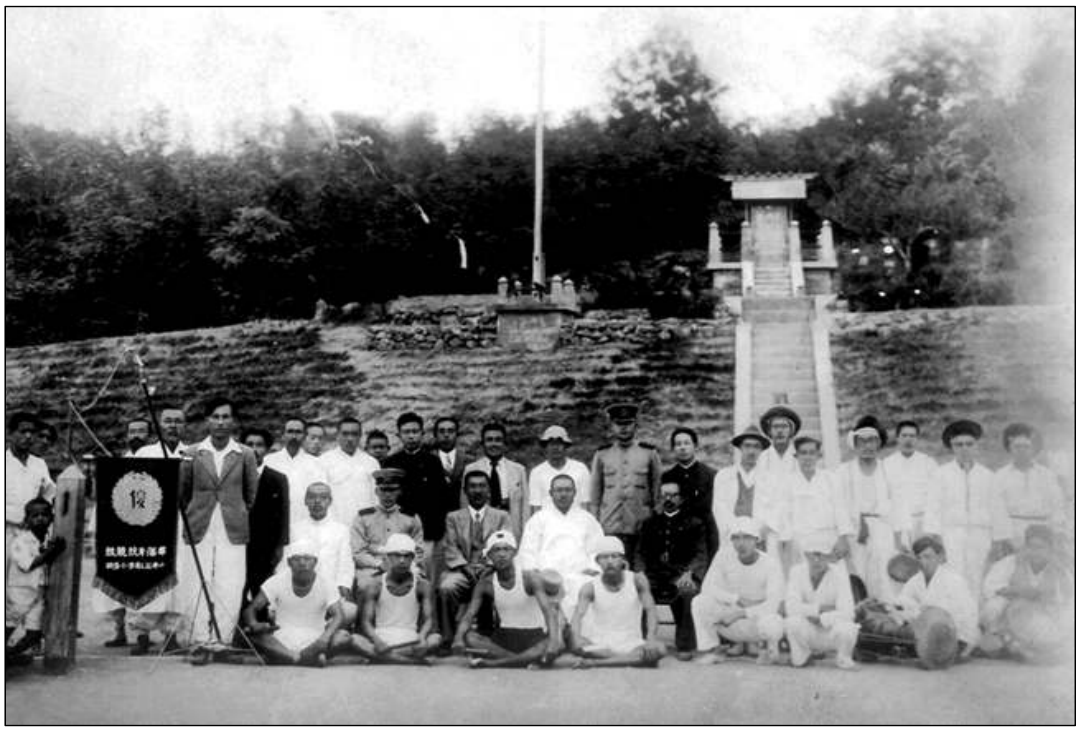
○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 건설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전월산 아래 남면 진의리에는 신명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짐

연기신사(燕岐神社): 조치원 침산공원에 있었다.
대평신사(大平紳士): 금남면 대평리에 있었다.
진의신사(眞儀紳士): 남면 진의리에 있었다.

조치원문화원(1996), 『동면지』 中 120쪽 참조.

6) 소정초등학교 교내 신사

○ 신사와 같은 신앙대상물은 학교 내에도 있었는데, 과거 소정초등학교인 소정공립심상소학교 졸업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제공: 민경희 관장(소정면작은도서관)

<그림 2-17> 소정공립심상소학교 졸업사진(1938~1941년 사이)

2. 황국신민서사비

○ 「황국신민서사」는 조선의 국민을 황국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하나로서 1937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맹세를 의미함

-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와중에서 발표되었음
- 이는 제3차 조선교육령의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중심의 식민교육책과 연계되는 의미를 함의함
- 황국신민서사의 암송과 제창은 일본의 관제 미신인 신사참배와 연동되는 가운데 충량한 황국신민의 길을 걷도록 하는 기만책이었음
- 황국신민서사를 비석, 탑, 돌 등에 새겨 조선인들에게 암송을 강요함

○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맞추어)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1) 연남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아동용 황국신민서사비(연기향토박물관 소장)

○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의식을 주입하고자 '교육'을 활용한 일제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비석을 건립하여 황국신민 서사를 새겨 암송하게 함으로써 식민 의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함

○ 과거 연남초등학교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황국신민서사비(아동용)이며, 현재는 연기향토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음

○ 앞면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으나, 탁본한 결과 글귀가 그대로 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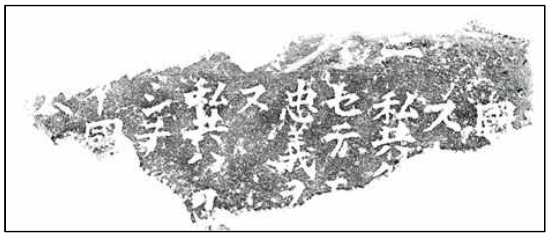


<그림 2-18> (좌)과거 연남초등학교에서 발견된 황국신민서사비와, (우)탁본본

2) 과거 연서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성인용 황국신민서사비(연기향토박물관)

- ❍ 과거 연서초등학교에 세워졌던 성인용 황국신민서사의 비이며, 현재는 연기향토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음
- ❍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의 비 뒷면을 하늘색 페인트로 덧칠하고 교내 놀이터 이정표로 1990년대까지 활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 ❍ 탁본 결과, 비문의 형체가 완벽히 보존되어 있지 않아 완벽한 해석이 어려우나, '우리들(私供)、충의(忠義)'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9> 과거 연서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성인용 황국신민서사의 비

3) 현재 금남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해방기념 비((구)황국신민서사비)

- 현재 금남초등학교(1920년 9월 개교)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해방기념비로서, 과거 '황국신민서사의 비'로 활용된 비석임
- 비석 앞면에는 황국신민서사를 지워 하얗게 바래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에는 '解放紀念碑(해방기념비)'라고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해방 이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 옆면에는 '단기 4279년 졸업 기념'이 한자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2-20> 금남초등학교의 해방기념비(과거 황국신민서사비)

3절 일상과 정착의 잔재

-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많은 일본인들이 유입되어 거주를 했음
- 특히 조치원 지역은 일제강점기 광목(廣木) 유통의 집산지 역할을 했으며, 이에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일본인들이 함께 살았음
-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적산가옥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았으며, 이들은 수탈과 핍박 등 아픔을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사는 거주민으로서 일상을 영위하기도 하였음
- 사실 적산가옥(敵産家屋)은 건축의 양식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敵國, 일본)의 재산을 가리킴[5)]
  - 일본이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철수하며,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인(日人) 소유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회경제적인 [6)]의미가 있음
- 따라서 적산가옥은 건축의 기능·양식 따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들을 포함하며, 더욱 적확한 표현은 '일식가옥'이나, 이 연구에서는 적산가옥을 사용하고자 함
- 세종지역에서의 적산가옥은 주로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부강면에 유일한 적산가옥이 현재에도 잔존하고 있음
- 하지만 이 같은 적산가옥들은 집주인의 무관심, 개발 논리의 편승으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5) 이연경, 「사라져가는 '무명씨건축'들을 위하여」, 『건축』 제59권 제54호, 2015.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적산가옥'

1. 적산가옥

1) 부강면 적산가옥(오인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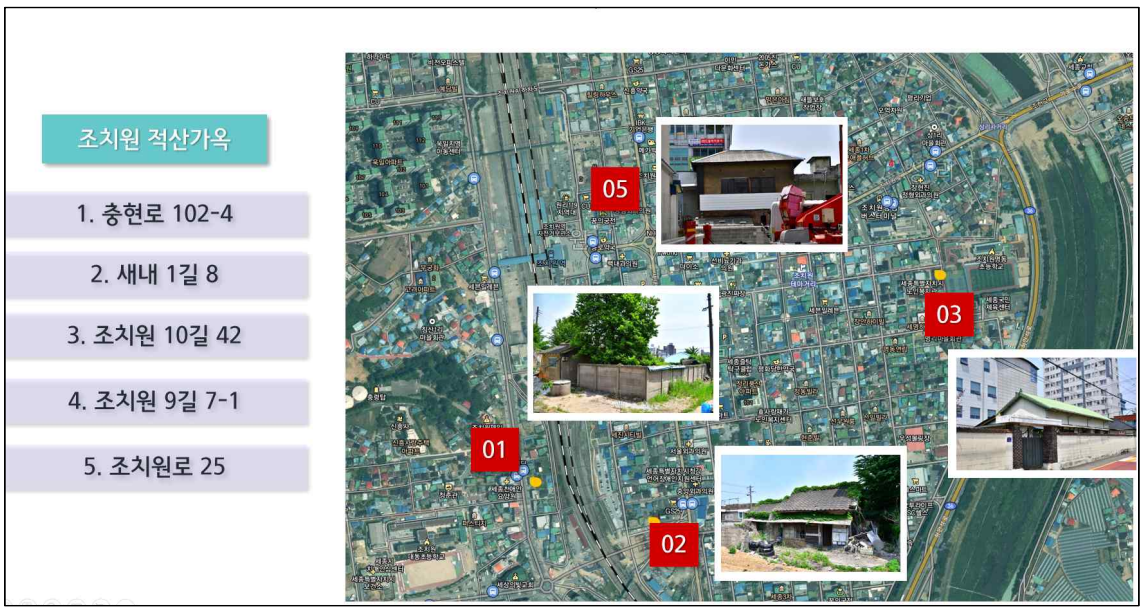
○ 현재 부강면 부강리에 소재하는 적산가옥으로 (전)부용면장을 역임했던 오인수 어르신의 자택이고, 현재 면내 유일한 적산가옥임



<그림 2-21> 부강면 적산가옥(오인수 가옥)

2) 조치원 적산가옥

- ❍ 과거 조치원 지역에는 많은 적산가옥들이 있었으나, 점점 소실되고 있음
- ❍ 하지만 현재에 남아있는 적산가옥들도 집주인의 무관심, 개발 논리에 의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 ❍ 조치원에서는 현재에도 많은 적산가옥이 전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네 채의 적산가옥을 소개하고자 함



<그림 2-22> 이 연구에서 다루는 조치원의 적산가옥

(1) 조치원 적산가옥 충현로 102-4

○ 충현로 102-4에 소재하고 있는 적산가옥



<그림 2-23> 충현로 102-4 내·외부 모습

(2) 조치원 적산가옥 새내1길 8

○ 새내1길 8에 소재하는 적산가옥임



<그림 2-24> 새내1길 8 외부 모습

(3) 조치원 적산가옥 조치원 10길 42

○ 조치원 10길 42에 소재하는 적산가옥임



<그림 2-25> 조치원 10길 42 외부 모습

(4) 조치원 적산가옥 조치원로 25

○ 조치원로 25에 소재하는 적산가옥임



<그림 2-26> 조치원로 25 외부

3) 세종시 관내 학교 교가의 작곡가·작사가 현황

❍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1개교

– 관내 학교 전수조사하여, 교가의 작곡가·작사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경우를 발견했으나, 추가적인 자료 부족으로 검증할 수 없음

– 이를 구명하기 위해 학교 측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으나, 학교에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4) 세종시 관내 지명(지역명, 도로, 다리, 산천 등)

❍ 세종시에서 의뢰했던 아래의 용어들이 일제 잔재와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향토사가들의 의견을 청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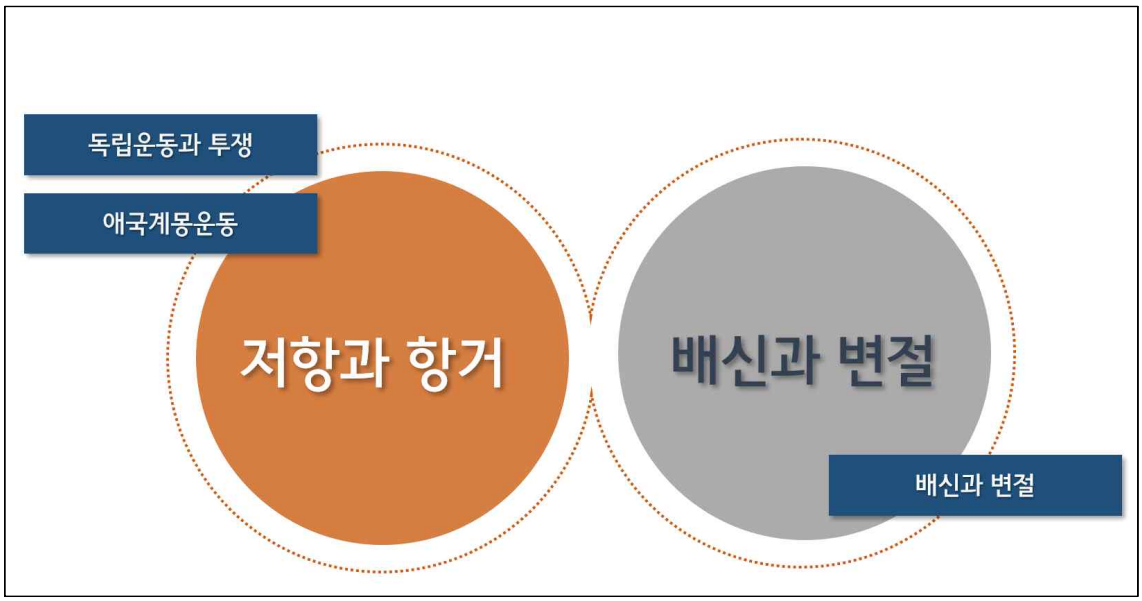
– 당산(塘山), 아야목(我也目), 구룡(九龍), 양안이(良安), 남부(南部), 북부(北部), 서부(西部), 오룡개(五龍介), 왕암(旺岩), 동부(東部)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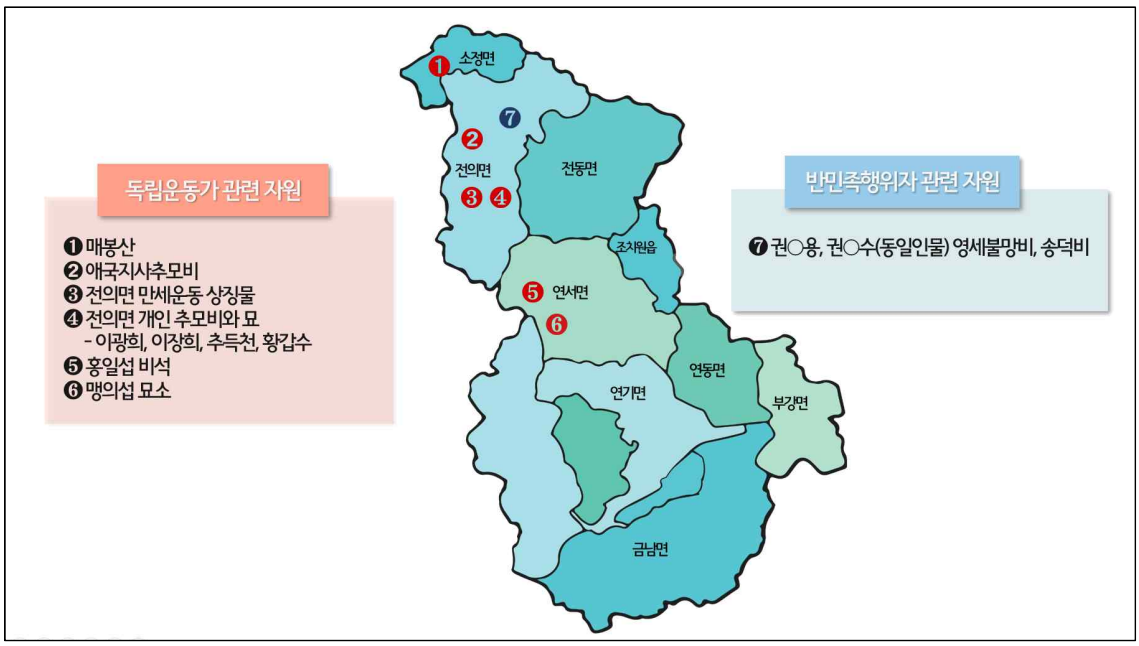
세종시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 양상

1. 저항과 항거
2. 배신과 변절로서 대응

3장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



<그림 3-1>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



<그림 3-2> 독립운동가, 반민족행위자 관련 자원

■ 저항과 항거 VS 변절과 부역

○ 저항과 항거로서의 대응_독립운동가

– 세종지역의 지역민들은 일제의 수탈과 핍박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저항과 항거로서 대응했던 양상을 나타냄

–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공훈록에는 과거 연기군 지역 출신이 총 45명 등재되어 있음

○ 변절과 부역으로서 대응_반민족행위자

– 일제의 수탈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변절과 부역으로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들의 반민족행위는 현재까지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게 됨

–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에는 세종지역에서 태어난 반민족행위자가 10명, 세종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반민족행위자가 25명으로 조사되었음

1절 저항과 항거

■ 세종지역 독립운동가 공훈록

○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공훈록에는 총 45명의 세종지역 출신 독립운동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대전현충원에 묘소가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는 20명임

[표 3-1] 연기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공훈록

성명(한자명)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 시기	포상 훈격	내용	묘역 위치	안장일
곽한소(郭漢昭)	1882~1927	의병	2015	건국포장	창의격문 배포· 상소문과 성토문 작성		
권혁기(權赫基)	1889~1933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만세시위 주도	3묘역-592	2007.10.09
김봉식(金鳳植)	1865~1934	3.1운동	2008	건국포장	만세시위 계획·참여		
김재황(金在璜)	1917~2004	학생운동	1990	애족장	조선학생동지회 조직	3묘역-145	2004.12.09
박노일(朴魯一)	1923~1976	광복군	1990	애족장	지하공작책 활동		
박장희(朴壯熙)	1895~1950	만주방면	1990	애족장	독립군 활동· 군자금 모집		
안광조(安光祚)	1884~1920	의병	1996	독립장	채응언 의병진 가담		
오강표(吳岡杓)	1948~ 1910	계몽운동	1962	독립장	한일합방조약 이후 순국	3묘역-566	2007.09.20
유시풍(劉時豊)	1869~1947	3.1운동	2006	애족장	독립만세운동 주도		
유진광(兪鎭廣)	1883~1944	3.1운동	2005	대통령표창	기룡리 만세시위 주도	3묘역-281	2006.06.22
유진만(兪鎭萬)	1912~1966	중국방면	1990	애국장	한인 청년당 조직· 한인 애국단 가입, 일제고관 주살 계획		
윤상억(尹相億)	1899~1992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시위운동 전개		
윤상원(尹相元)	1895~1973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독립만세 시위운동 계획	4묘역-451	2011.11.24
윤상은(尹相殷)	1892~1938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독립만세 시위운동 전개		
윤자명(尹滋明)	1868~미상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전의면 만세운동 계획·참여		
윤자벽(尹滋璧)	1884~1930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만세운동 참여		
윤자훈(尹滋勳)	1894~1936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만세운동 참여		
이광희(李光熙)	1895~1943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독립만세 시위운동 전개		
이덕민(李德敏)	1867~1924	3.1운동	2008	건국포장	횃불시위 전개		
이상건(李相健)	1868~1942	3.1운동	2010	대통령표창	만세운동 참여	4묘역-529	2012.05.19
이수양(李秀陽)	1889~1977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독립만세 시위운동 전개	4묘역-364	2011.04.18
이수욱(李秀郁)	1890~1970	3.1운동	1990	애족장	독립만세운동 주도		

이장희(李章熙)	1887~1932	3.1운동	1995	대통령표창	독립만세 시위운동 전개	안장위치 등록중	2021.06.10
임대수(林大洙)	1882~1911	의병	1990	애국장	의병운동 전개	안장위치 등록중	1997.10.16
임덕문(林德文)	1886~미상	3.1운동	2017	건국포장	횃불독립만세운동 주도		
임만수(林萬洙)	1885~1949	3.1운동	2019	대통령표창	횃불독립만세운동 전개	5묘역-383	2020.03.16
임숙명(林淑明)	1884~1959	3.1운동	2019	대통령표창	횃불독립만세운동 전개		
임영복(林永福)	1874~1935	3.1운동	2008	건국포장	횃불시위 전개		
임우철(林禹喆)	1920~2021	일본방면	2001	애족장	민족자본 육성	6묘역-41	2021.06.10
임헌규(林憲奎)	1885~1954	3.1운동	1992	애족장	독립만세 운동 전개	안장위치등록중	1994.11.16
임헌상(林憲祥)	1877~1959	3.1운동	2008	대통령표창	횃불독립만세 시위		
임희수(林喜洙)	1887~1933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독립만세 운동 전개	안장위치 등록중	2007.06.14
장기민(張基民)	1897~1921	3.1운동	1995	애족장	횃불시위 전개	3묘역-813	2008.05.08
장재규(張在圭)	1882~1977	국내항일	2009	대통령표창	민적조사 부당성 주장·납세정책 반대	4묘역-139	2009.09.17
장재학(張在學)	1862~1919	국내항일	2005	애족장	민적조사 부당성 주장·납세정책 반대		
장홍진(張弘鎭)	1899~1938	3.1운동	1992	대통령표창	횃불독립만세 시위		
장화진(張和鎭)	1899~1974	국내항일	2006	건국포장	호적입적 · 납세 거부		
정상복(鄭相福)	1899~1946	3.1운동	2014	대통령표창	독립만세운동 참여		
정원필(鄭元弼)	1874~1938	3.1운동	2006	대통령표창	만세운동 전개		
정정화(鄭靖和)	1900~1991	중국방면	1990	애족장	한국혁명여성동맹 조직 독립운동가 자녀 교육		
조의순(趙義淳)	1874~미상	3.1운동	2010	건국포장	만세운동 주도		
조태화(趙泰和)	1868~1934	미주방면	2016	대통령표창	독립운동자금 지원		
추경춘(秋敬春)	1889~1940	3.1운동	1990	애족장	독립만세운동 주도		
추득천(秋得千)	1895~1953	3.1운동	1990	애족장	독립만세시위 전개		
홍일섭(洪日燮)	1878~1935	3.1운동	1990	애족장	독립만세시위 전개		
황갑수(黃甲秀) 황인덕(黃仁德)	1921~2009	광복군	1990	애족장	중국군 유격대 활동		
가네코후미코 (金子文子)	1903~1926	독립운동 지원	2018	애국장	제국주의 반대 기관지 발간 불령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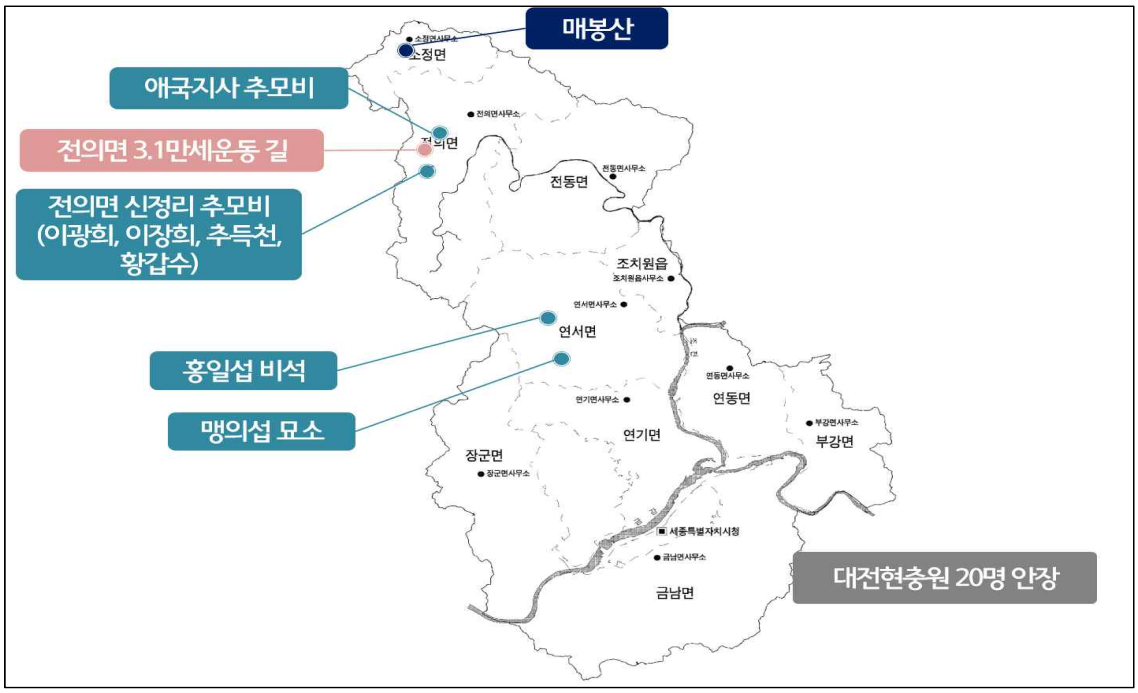
■ 세종지역 독립운동가 자원 현황

○ 세종지역 독립운동가 자원 현황으로는 추모를 위한 비석과 시민인식 확대를 위한 공간형 콘텐츠, 역사적 흔적, 개인 묘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추모를 위한 비석과 묘소로는 전의면 애국지사 추모비, 개인 추모비석과 묘소(이광희, 이장희, 추득천, 황갑수, 홍일섭, 맹의섭)가 있음

– 공간형 콘텐츠로는 전의면 3.1 만세 운동길 및 상징조형물이 있음

– 역사적 흔적으로는 소정면 매봉산이 있음



<그림 3-3> 세종지역 독립운동가 자원 존재 양상

1. 비석

1) 애국지사 추모비

○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이 3월 1일 시작된 이후, 과거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지역에서는 정확히 12일 뒤인 3월 13일 전의면 전의장터를 중심으로 펼쳐짐

– 만세시위는 고종의 장례식에 다녀온 이수욱(李秀旭)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2월 26일 상경해 3.1 운동을 직접 목격한 후 귀향한 그는 전의면 신정리 인사들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음

– 13일 오전 9시경 갈정리고개(장고개)에서 시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주고, 12시 40분경 150여 명의 군중에게 연설하며 독립 만세를 부르도록 요청하였음

– 이에 주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전의시장 각처를 활보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조치원에서 헌병과 철도원호대원 20명을 출동시켜 진압하였음

○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이 3월 1일 시작된 이후, 과거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지역에서는 정확히 12일 뒤인 3월 13일 전의면의 전의장터를 중심으로 펼쳐짐



<그림 3-4> 애국지사추모비 정면 모습

○ 이 비석은 거북모양의 귀부(龜趺), 비신(碑身), 용의 형상을 한 비두(碑頭)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석의 정면에는 '愛國志士追募碑'라 새겨져 있음

○ 비석의 우측 측면 전의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이수욱에 대한 추모사가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추모비 건립기가 새겨져 있음

<애국지사추모비 측면: 이수욱 추모사>

지사 이수욱 추모사

운왕산 정기받아 태어나신 우국지사 소시부터 영매하여 국치민욕 참다못해 웅지품고 집을 떠나 국권회복 꾀하다가 3.1운동 전개되자 늦을새라 귀향하여 앞장서서 군중모아 독립만세 부를적에 왜적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초 겪어가며 긴긴 세월 옥살이를 악형으로 신음타가 형기마쳐 풀려날제 개심여부 묻는 말에 일편단심 민족혼이 죽어간들 변할소냐 이 내 몸은 앗아가도 정신만은 못앗으리 굳은 의지 표명하며 힐책하고 돌아서니 이리같은 왜구들도 아연실색 하였도다 하신일도 크거니와 남긴 자취 뚜렷하니 숭고하신 애국충정 유방백세하오리라

<애국지사추모비 후면 : 추모비 건립기>

우석 이수욱 지사는 이 고향출신으로 의협심이 강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하여 일제침략하에 신음하는 우리 국가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통탄하고 약관의 젊은 나이로 웅지를 품고 상경하였다. 당시 국내정세는 주권을 왜적에게 약탈당한지 10년 적의 철쇄에 억매였든 우리 애구지사들은 일편단심 국권을 회복코저 해외에서는 독립투사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국내에서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세계만방에 선포하며 3.1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때 그는 시각을 지체않고 고향인 신정리로 돌아와 의연히 독립정신을 발휘하여 애국심에 불타는 동지들을 규합하니 이에 호응한 동리거주하는 추경춘 윤상원 추득천 윤상돈 정원필 윤자훈 이추양 윤자벽 윤자명 이규영 이상건 윤상은 이장희 정상복 이광희등 15인은 그의 주동하에 비장한 각오로 결상대를 조직하여 선두에 나서 야음을 타고 은밀히 각리를 순방하며 이에 참여학를 역설함과 동시에 비밀리에 제작한 국기를 배부하고 독립선언문을 살포하며 기미년 3월 13일 음 2우러 12일 전의장날을 기하여 이 운동을 거사키로하였다. 드디어 이 날이 닥처오자 수천 군중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시장에 운집하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천지가 진동하게 부를때 왜구들이 몰려오매 이를 제지하려고 감투하였으나 잔학무도한 왜병들이 총검을 휘두르며 위협발표하니 일시에 수라장으로 변하는 유혈참극이 버러졌고 왜구에게 체포된자 수십인이러니 이 운동에 앞장섰든 결사대원 16인만 공주 검사국에 송치되고 여타는 석방되었다. 검사국에 구치된 이들은 혹독한 고문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왜적의 침략행위를 힐책하며 끝내 항일하니 천인공로할 만행적인 혹형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르러짐은 물론 주도자인 이수욱은 우심한 조형까지 당하여 손톱 발톱이 다 으스러져 상실되었다. 이들은 6개우러동안 미결수로 감옥에서 무수한 고초를 격다가 재판에 회부도어 억울하게 중형언도를 받고 옥고를 치루니 모두가 분통함을 금치못하였다. 이와같이 천추에 빛나는 충절을 남겼으니 민족의 귀감이라 오등은 지사들의 유방을 추모하고 위훈을 후세에 전하며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기위하여 이에 추모비를 건립하노라.

2) 개인 추모비석과 묘소

⑴ 홍일섭(洪日燮, 1878~1935) 비석[7]

○ 연기군 서면 신대리 출신으로, 조치원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지역의 독립운동가임

– 당시 홍일섭은 낙향하여 국권 회복과 후진 양성을 위한 사숙(私塾)을 열어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음

– 연기청년회의 간부인 맹의섭·김재형·이은식·전병수 등은 홍일섭을 대표로 추대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 30일 아침 조치원시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시장을 보러 오는 지역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해달라는 협조를 구함

○ 홍일섭은 오후 2시경 시장 주민들을 향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함

– 일본 경찰에 붙잡힌 홍일섭은 일제의 보안법 위반으로 공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

○ 대한민국 정부는 홍일섭의 공적을 기리어 1983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追敍)함





<그림 3-5> (좌)홍일섭 선생 알림판, (우)비석

7)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그림 3-6> 연서면 고복리 봉서재의 홍일섭이 쓴 현판

(2) 맹의섭과 묘소

○ 세종지역에서 활동한 초대 조치원읍장을 지낸 행정가로서, 3·1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호서기자동맹을 조직하여 일제에 항거한 언론인[8)]

– 연기청년회를 조직하고 1·2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청년회의 활용을 통해 조치원지역에서 횃불만세와 3월 30일 조치원 장터만세운동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

– 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 기자를 지내면서 언론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였으며, 호서기자동맥을 조직하면서 언론의 권위신장을 위해 노력함

– 이 외에도 연기청년학원을 운영하여 지역에서 정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추운실기 사진 출처 : 세종의소리

<그림 3-7> (좌)조치원읍사무소 2층 회의실 맹의섭 사진, (우)추운실기

○ 1972년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회고록 『추운실기』를 발간하고, 1975년 9월 4일 별세함

– 추운실기는 연기군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실려있으며, 2021년 향토사학자 윤철원

8)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이 번역본을 발간함

❍ 맹의섭은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묘소에 비석 하나 없는 실상임

– 유일한 후손인 양아들도 묘소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맹의섭의 묘소는 고복저수지 조각공원 북쪽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3-8> (좌)맹의섭 선생 묘소 위치, (우)맹의섭 선생 묘소

(3) 이장희, 이광희 묘소와 비석[9)]

❍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서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에 다녀온 뒤 윤상억(尹相億)·윤상원(尹相元)·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3월 13일 전의시장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함께 참여함

❍ 독립만세 시위운동으로 인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이장희, 이광희는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이 확정됨

❍ 대한민국 정부는 이장희의 공적을 기리어 1995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追敍)함



<그림 3-9> (좌)이광희, 이장희 묘소·비석(전의면 신정리), (우)애국지사 알림판

9)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⑷ 추득천 묘소와 비석[10]

-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서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에 다녀온 뒤 윤상억(尹相億)·윤상원(尹相元)·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3월 13일 전의시장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함께 참여함
- 추득천은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보안법 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를 받고 항소(抗訴)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경성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룸
- 대한민국 정부는 추득천의 공적을 기리어 1986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추서(追敍)하였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음




<그림 3-10> (좌)추득천 묘소 전경, (우)묘비

⑸ 황갑수 묘소와 비석[11]

- 1945년 2월에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하여 광복군 제1지대 제3분대 제3분대장으로 중국의 후난성[湖南省]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
- 황갑수가 속하여 있던 광복군의 활동은 우군의 제일선 싸움터에서 170여 명의 대원이 집결하여 전방 또는 후방 공작에 참여함으로써 우군 작전에 많은 공헌을 세웠음

10)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11)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그림 3-11> 황갑수 추모비

(5) 가네코후미코 생가터[12)]

-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의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는 무정부주의 활동을 했던 박열의 아내
  - – 1912년부터 1918년까지 부강공립심상소학교(현 부강초등학교)에 다녔음
  - –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의 선전과 회원 규합에 노력하였으며, 이후 박열이 조직한 '불령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동경 대지진 직후 체포됨
  - –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야형무소 도치기지소에 수감 중에 순국함
- ❍ 현재 세종시 부강면에는 생가터가 남아있으나, 민간 소유임
- ❍ 대한민국 정부는 가네코 후미코의 공적을 기리어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追敍)하였음




<그림 3-12> (좌)가네코후미코 생가터, (우)묘소 전경(문경에 소재)

12)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2. 공간형 콘텐츠

1) 전의면 3.1운동 만세길과 상징조형물

○ 최근 세종시에서는 전의장터 만세운동의 이야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간형 콘텐츠로서 테마거리와 상징물을 조성하였음

– 만세운동길과 상징조형물은 전의역 앞에 조성되어 있음

○ 기념비 상단의 태극기는 독립기념관에 있는 3.1만세운동 당시 채집되었던 목판본 태극기를 차용하여 제작하였음[13)]

– 목판본 태극기의 형태를 차용한 것은 전의의 대표적인 상품인 나무묘목시장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뭇결 모양을 표현한 것임

– 중간 부분의 태극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17각"으로 조각하여, 이는 전의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17명"의 애국지사를 상징함

– 그리고 맨 아래 하단부의 원형 받침인 좌대 부분은 전의 초수, 즉 왕의 물이 샘솟는 우물을 의미함

○ 전의 3.1만세운동 애국지사 명단(17명)

– 김재주, 윤상동, 윤상원, 윤상은, 윤자명, 윤자벽, 윤자훈, 이규영, 이수욱, 이수양, 이상건, 이장희, 이광희, 정상복, 정원필, 추경춘, 추득천





<그림 3-13> (좌)3.1운동 만세 상징조형물, (우)안내판

13)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sj-urc.or.kr/

3. 역사적 흔적

1) 소정면– 매봉산

○ 세종시 전의면과 소정면에서는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했던 독특한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그림 3-14> 소정면 매봉산 전경

2절 배신과 변절로서 대응

1) 친일인명사전 고찰을 통한 총 10명의 출생자

○ 과거 세종지역(연기군·전의군·조치원읍 등)에서 태어난 반민족행위자는 10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3-2] 세종지역에서 태어난 반민족행위자

이름	생몰년도	출생지	직업	주요 활동지
김○현 (金○鉉)	1888~?	연기군	군수, 조선총독부, 내무부 등 근무	충북, 경성 등
유○열 (柳○烈)	1906~1967	연기군	판사	광주, 함흥 등
이○남 (李○南)	1910~1974	연기군	가수	경성, 일본 등
이○종 (李○鍾)	1897~1951	연기군	신문사 사장, 연맹 평의원, 국회의원	경성, 연기
임○훈 (林○勳)	1863~?	연기군	군수	연기 등
임○수 (林○洙)	1892~1960	연기군	중추원 참의	충남, 대전 등
진○구 (陳○龜)	1899~?	연기군	판사	평양, 함흥 등
하○환 (河○煥)	1887~1936	연기군	군수	충남, 충북 등
황○성 (黃○性)	1905~1981	연기군	군수	남해, 진양 등
황○성 (黃○性)	1883~?	전의군	경부	충북, 평안 등

자료: 민족문화연구소,『친일인명사전』, 2009, 참조

(1) 김옥현(金○鉉) / 군수

❍ 창씨명 : 金玉高明

❍ 생몰년도 : 1888~?

❍ 출생지 : 연기군 동이면

❍ 활동내용

– 충북 음성군수(1923.3~1926.4)

– 충북 보은군수(1926.4~1927.3)

– 충북 제천군수(1927.3~1929.4)

– 충북 괴산군수(1929.4~1930.4)

– 충북 옥천군수(1930.4~1935.4)

–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림과 촉탁(1935.4~1936)

– 충북 내무부 지방과 촉탁(1936~1937.2)

–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1937.2~)

– 충북 산업부 농무과(1938~1939)

– 산업부 농촌진흥과(1939~1943)

– 조선이주협회 충청북도지부 참사(1943~)

❍ 특이사항

–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래기념장 (1928년 11월)

– 훈 6등 서보장(1930년 6월)

(2) 유○열(柳○烈)

❍ 창씨명 : 柳澤憲烈·柳澤憲治

❍ 생몰년도 : 1906~1967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서기과 판임관견습 (1932.5~1933.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서기과 판임관견습 (1933.9~1935.11)

– 광주지방법원 서기과 서기 및 통역생 (1935.11~1938.3)

– 함흥지방법원 및 검사국 사법관시보(1940.1~1940.7)

– 함흥지방법원 검사대리(1940.7~1940.11)

– 부산지방법원 판사(1942.3~1945.4)

–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 판사(1945.4~1945.8)

※ (해방 이후)

– 대전변호사회 부회장(1952.5), 회장(1953.5)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1959.4)

– 대전지방법원장(1960.1)

– 춘천지방법원장(1960.5)

(3) 이○남(李○南)

❍ 창씨명 : 南邦雄

❍ 생몰년도 : 1910.1.15.~1974/1979.12.31.

❍ 출생지 :연기군

❍ 활동내용

– 콜럼비아레코드사 전속가수(1932~1935)

– 빅타레코드사 전속가수(1935~1941)

– 콜럼비아레코드사 전속가수(1941~1943)

– 만주개척촌위문연예단(滿洲開拓村慰問演藝團)으로 만주에 파견되어 공연(1942.8~1942.9)

– 반도(半島)가극단(1943~1945)

– 월북 내무성 예술단(1950.6.25.~1974/1979)

(4) 이○종(李○鍾)

❍ 창씨명 : 宮村薰

❍ 생몰년도 : 1897~1951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서기 겸 통역생(1917.5~1917.10)

– 흥사단 입단(1923.12)

– 조선사정조사연구회 회원(1925.9)

– 경성도서관 종로분관장(1926.4~1931.5)

– 정음회(正音會) 위원(1926.11)

–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원촉탁(1928~1933)

– 조선경제학회 간사(1933.6)

– 화신백화점 조사과장 겸 경성지점장(1934.3)
– 조선어연구회 간사(1934.4)
– 조선어학연구회 대표간사(1935.4)
– 친일신문 ≪조선상공신문(朝鮮商工新聞)≫ 사장 겸 주필(1936~1938)
– 경성 군사후원연맹 위원(1937.7)
– 조선 지원병제도 제정 축하회 발기인, 조선춘추회 결성 참가(1938.2)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결성 발기인(1938.7)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1940.10)
– 임전대책협력회 결성식(1941.8)
– 조선임전보국단 조직 발기인(1941.9)
※ (해방 이후)
– ≪상공일보≫ 사장, 금융조합연합회 회장, 협동생명회사 사장 역임
– 제2대 국회의원 연기군 무소속 출마 및 당선(1950.5)

❍ 특이사항
– 조선상공신문 사장·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5) 임○훈(林○勳)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63~?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 주사(1906.10)
– 연기우체소 주사(1906.12 ~ 1909.3)
– 연기군수 서리 겸직(1907.10)
– 연기군수로 승진(1909.2)
– 합병 후, 연기군수로 유임(1910.10)
– 충청남도 석성 군수(1913.4~1914.2)
– 조치원금융조합 조합장(1914.8)
– 충청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1915.5~1917.7)
– 연기금융조합 조합장(1927)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1912.8)

(6) 임○수 (林○洙)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92~1960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조선총독부 순사보로 취직, 충남 근무(1911.10)

– 공주경찰서 순사(1916.8~1919.7)

– 도쿄 경시청으로 전근(1919.7~1919.12)

– 일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식 시도 중 체포(1920)

– 일본 사법성 변호사시험 합격, 공주에서 개업(1922.6)

– 공주권업주식회사 감사역(1922.9)

– 공주청년수양회 체육부장(1923.5)

–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공주지방부 집행위원(1923.8)

– 민선 충청남도 도평의회의원 당선(1924.4)

– 공주청년수양회 회장(1924.5)

– 공주보통학교 학무위원 위촉(1924.10)

– 공주노동협성회((公州勞動協成會) 설립 발기인(1926.1)

– 도평의회원 내지시찰단 단원으로 도일(1926.2)

– 내선융화단체 동민회(同民會) 공주지부 간사(1927.12)

– 충북 영동청년동맹 사건, 《중외일보》 필화사건 변호(1928.2, 1928.5)

– 국민협회 평의원(1930.1)

– 국민협회 총무(1931.1)

– 충청남도 도회의원 당선(1933.5)

– 도회의원 만주국 시찰단(1935.5)

– 충남 홍성공업전수학교 기부금모집위원(1935.7)

– 대전체육회 회장(1935.9)

– 유성온천주식회사 감사, 공주금융조합 평의원(1935)

– 충청남도 도회의원 재선(1937.5)

– 신궁참배단에 참가. 이세·아츠다·메이지 신궁 등 참배(1939.4)
–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 이사(1939.10)
–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관내 대전분회 부분회장(1939.11)
– 국민총력조선 연맹 이사(1941.2~1942.6)
– 관선 충청남도 도회의원(1942.5)
–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이 지정하는 변호사'에 위촉(1942.7)
–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충청남도 위원(1942.8)
– 조선임전보국단 조직 발기인(1941.9)
– 조선임전보국단 충청남도지부 이사장(1941.11)
– 징병제시행감사 적(敵)미영격멸결의선양 전선(全鮮)공직자대회에 참석, 비행기 공직자호 헌납 등 결의(1943.10)
–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會) 이사(1944.9)
– 중추원의 주임관 대우 참의(1945.6)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서 파면(1945.11.3.)
– 반민특위에 체포(1949.1)
– 공민권 정지 2년을 선고받음(1949.7)

❍ 특이사항
– 조선쇼와5년국세조사기념장 (1932.10)
– 기원2600년축전기념장(1940.11)

(7) 진○구(陳○龜)
❍ 창씨명 : 有田泰龜·有田潤弘
❍ 생몰년도 : 1899~?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공지지방법원 충주지청 서기과 서기(1922.10~1930.3)
– 평양지방법원 판사(1930.3~1932.10)
–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 판사(1932.10~1937.2)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판사(1937.2~1940.8)
–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1940.8~1944.3)
– 주지방법원 순청지청 판사(1944.3~1945.8)

– 미군정청 경성공소원 판사(1946.11)→서울고등심리원 부장판사(1947.1)

– 납북 (1950.8)

(8) 하○환(河○煥)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87~1936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통감부 통신관리국 전의(全義)우편소 주임주사(1908.7)

– 충청남도관찰도 연기군 주사(1909.3)

– 충청남도 연기군 서기 임명(1910.10)

– 충청남도 예산군 서기(1916.9)

– 충청남도 제1부(회계계 물품취급주임) 서기(1917.7)

– 충청남도 내무부 회계과 속(1921.2)

– 충청남도 청양군 속(서무주임) (1924.12)

– 충청남도 서천군수 부임(1925.5)

– 충청남도 홍성군수 부임(1930.2)

– 충청남도국방의회연합회 이사(1934.4)

– 충청남도 서산군수 부임 중 사망(1936.8~1936.12.14.)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1912.8)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15.11)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28.11)

– 훈6등 서보장(1931.6)

– 조선쇼와5년국세조사기념장(1932.10)

– 시정25주년기념 표창(1935.10)

– 훈5등 서보장(1936.11)

– 사망 후, 종5위 특서

(9) 황○성(黃○性)

❍ 창씨명 : 黃本正夫

❍ 생몰년도 : 1905~1981

❍ 출생지 : 연기군

❍ 활동내용

– 경상남도 진주공립농업학교 교유(敎諭) 겸 사감(1924~)

– 동래고등보통학교 교유, 부산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 겸직(1934.9)

– 경상남도 지사관방 속 내무부 학무과 시학(1938.4)

– 경상남도 남해군수(1940.11~1945.3)

– 경성부민관 전선유림대회 남해군 대표(1941.10)

– 경상남도 진양군수(1945.3~1945.10)

– 진주농과대학 초대학장(1948.9)

– 미국 공보원 진주분원 설치위원장(1950.6)

– 진주농림학교 교장(1950.10)

– 도립 진주농과대학 초대 학장, 진주여자고등학교 교장, 진주농림고등학교 교장(1952)

– 학생들의 배척운동으로 사임(1960.6)

– 충청남도 서산농림고등학교 교장(1961)

– 대전고등학교 교장(1962)

–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1964.2~1968.2)

❍ 특이사항

– 진주군 교육회 교육공로자 표창장(1934.9)

– 홍조근정훈장(1963.12)

(10) 황○성(黃○性)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83~?

❍ 출생지 : 충남 전의

❍ 활동내용

– 일본 사이타마현 경진사잠업학교 졸업(1906.08.~1907.08)

– 충청도 선유위원(宣諭委員) 임명(1907.09)

– 전라북도관찰도 전주경찰서 통역(1908.03.~1909.04)

– 전라북도관찰도 군산경찰서 및 고부경찰서 번역관보 (1909.04.~1909.06)

– 전라북도 김제경찰서 경부(1912~1913)

– 충청북도 청주경찰서 경부(1913~1915)

– 평안북도 철산경찰서 경부(1916~1917)

– 평안북도 군서기(1917.1)

– 평안북도 신의주부 서기(1917.10~1919.5)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1912.8)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15.11)

2) 친일인명사전 고찰을 통한 총 25명의 활동자

○ 과거 세종지역(연기군·전의군·조치원읍 등)에서 태어난 반민족행위자는 25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3-3] 과거 세종지역에서 활동했던 반민족행위자

이름	생몰년도	출생지	직업	주요 활동지
고○준(高○駿)	1878~?	서울	군수	연기 등
권○용(權○容)	1874~?	미상	군수	전의
김○용(金○鎔)	1899~?	충남	경찰	조치원, 논산 등
김○(金業)	1910~2010	서울	군수	연기 등
김○화(金○和)	1844~?	?	군수	연기 등
박○준(朴○俊)	1890~?	공주	교정공무원, 군수	연기 등
박○모(朴○模)	미상	미상	서기, 군수	연기, 포천 등
신○식(申○植)	1908~?	충남	순사	조치원
안○선(安○善)	미상	미상		
오○근(吳○根)	1894~?	충남	경부	조치원
원○상(元○常)	1881~?	충남	서기, 군수	전의
윤○선(尹○善)	미상	미상	경부, 면장	조치원, 아산 등
이○성(李○性)	1896-?	함경	속(屬)	연기, 예산 등
이○승(李○昇)	1887~1976	서울	국회의원	연기
이○세(李○世)	1913~?	충북	경찰	조치원
장○원(張○源)	1870-1949	함경	군수	전의
정○모(鄭○謨)	1895~?	대전	속(屬)	연기
정○성(鄭○成)	1888~1966	천안	서기	연기
채○항(蔡○恒)	1892~?	공주	속	연기
최○영(崔○榮)	1899~?	충남	경찰	조치원
한○현(韓○鉉)		서울	면장	공주
한○수(韓○洙)	1898~?	충남	경부	조치원
홍○욱(洪○頊)	1886~?	옥천	서기, 군수	연기

(1) 고○준 (高○駿)

○ 창씨명 : 高島基

○ 생몰년도 : 1878~?

○ 출생지 : 서울

○ 활동내용

– 충남 연기군수 (1913.4.~1918.1.)

– 충남 연기군수 재직 중 충청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 역임 (1915.5~1917.7)

– 3.1운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경고문을 전국에 반포, 조선총독부에 건의서 제출 (1919.4)

○ 활동내용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15.11)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28.11)

– 훈3등서보장(1930.7)

– 조선쇼와(昭和)5년 국세조사기념장(1932.10)

(2) 권○용(權○容)_현재 송덕비와 영세불망비가 잔존 함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74~?

○ 출생지 : 미상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전의군수(1903.8)

– 충청남도관찰도 공주군수(1908.3)

– 공주군수에 유임(1910.10)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1912.8)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15.11)

– 훈6등서보장(1921.3)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28.11)

(3) 김○용(金○鎔)

❍ 창씨명 : 大川文鎔

❍ 생몰년도 : 1899~?

❍ 출생지 : 충남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조치원경찰서 순사 (1925~1930)

(4) 김○(金○)

❍ 창씨명 : 南原淸

❍ 생몰년도 : 1910~2006

❍ 출생지 : 서울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수 (1943.09~1945.08)

(5) 김○근(金○根)

❍ 창씨명 : 金海元根

❍ 생몰년도 : 1886-1965

❍ 출생지 : 경북 경주

❍ 활동내용

– 조치원에서 소도매상 경영(1899)

– 무역상점인 김원근상회(金元根商會)를 설립·경영 (해산물·미곡·광물 등을취급하는 실업가로 활동)(1905)

– 충청남도 연기에서 연청학원(燕淸學院) 설립(1908)

❍ 특이사항

–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28.11)

– 감수포장(紺綬褒章) (1937.8)

(6) 김○화(金○和)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44~?

❍ 출생지 : ?

❍ 활동내용

– 1920년 10월 충청남도 연기군수 부임(1920.10)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1912.8)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계기념장 (1915.11)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28.11)

(7) 박○준(朴○俊)

❍ 창씨명 : 松本憲武

❍ 생몰년도 : 1890~?

❍ 출생지 : 공주

❍ 활동내용

– 충남 연기군 서무계 및 내무계 주임(1933.01.~1936.08)

– 충남 연기군 소작위원회 위원 선출(1933.04)

❍ 특이사항

– 조선쇼와(昭和)5년 국세조상기념장(1932.10)

– 시정25주년기념표창 (1935.10)

– 훈7등 서보장(1936.10)

– 훈6등 서보장(1938.11)

– 『지나사변공적조서』에 이름이 오름

– 일본적십자사 유공장(1941.5)

(8) 박○희(朴○熙)

❍ 창씨명 : 竹村喆熙

❍ 생몰년도 : 1877~1944

❍ 출생지 : 충남 공주군

❍ 활동내용

– 충남 공주군 반포면 소재 조림성공임야(造林成功林野) 250정(町)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양 받음(1927.3)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1912.8)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15.11)

– 훈6등 서보장(1921.3)

– 훈5등 서보장(1925.5)

– 종4위에 서위(1928.4)

– 훈4등 서보장(1928.6)

– 쇼와천황(昭和) 즉위기념 대례기념장(1928.11)

(9) 박○모(朴○模)

❍ 창씨명 : –

❍ 생몰년도 : 미상

❍ 출생지 : 미상

❍ 활동내용

– 충남 연기군 판임관견습(1915.5.~1916.8)

– 충남 연기군 서기(1916.8.~1921.11)

❍ 특이사항

– 조선 쇼와(昭和)5년국세조사기념장(1932.10.)

– 시정25주년기념표창(1935.10.)

(10) 신○식(申○植)

❍ 창씨명 : 竹本幸正

❍ 생몰년도 : 1908~?

❍ 출생지 : 충남

❍ 활동내용

– 조선총독부 순사교습소(1931.7.~1931.10)

– 충남 조치원경찰서 전의주재소 순사(1931.10.~1933.12)

– 충남 조치원경찰서 서면주재소 순사(1934.1.~1935.12)

– 경성 본정경찰서 고등계 형사(1939.12.~1940)

❍ 특이사항

–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 에 게재

(11) 안○선(安○善)

❍ 창씨명 : -

❍ 생몰년도 : 미상

❍ 출생지 : 미상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전의군수(1911.3.~1914.3)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 (1912.8)

-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15.11)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28.11)

(12) 오○근(吳○根)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94~?

❍ 출생지 : 충남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조치원경찰서 경부보(1923.1.~1924.12)

(13) 원○상(元○常)

❍ 창씨명 : 元村重盛

❍ 생몰년도 : 1881~?

❍ 출생지 : 충남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전의군 서기(1910.10.~1913.7)

(14) 윤○선(尹○善)

❍ 창씨명 : -

❍ 생몰년도 : 미상

❍ 출생지 : 미상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조치원경찰서 경부(1921~1922)

(15) 이○성(李○性)

❍ 창씨명 : 青島孟性·青島弘

❍ 생몰년도 : 1896-?

❍ 출생지 : 함경남도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 속(1938~1939)

(16) 이○승(李○昇)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87~1976

❍ 출생지 : 서울

❍ 활동내용

- 서울에서 출생 후, 충남 연기로 이주
- 제2대 민의원 보궐선거(충남 연기)무소속 당선(1952.2)

❍ 특이사항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수령(1928.11)
- 종6위에 서위(1929.6)
- 종5위로 승서(1936.2)

(17) 이○세(李○世)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913~?

❍ 출생지 : 충북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조치원경찰서 순사(1934.3.~1936.5)

(18) 장○원(張○源)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70-1949

❍ 출생지 : 함경북도

❍ 활동내용

– 충청남도관찰도 전의군수(1908.05.~1909.03)

– 충청남도관찰도 전의군 사립 대동학교(大東學校) 감독(1909.5.~1910.10)

– 합병 후 충청남도 전의군수 임명(1910.10.~1911.2)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 (1912.8)

– 기원2600년축전 기념식전 봉축회 참석 및 기념장 수령(1940.11)

– 전의 대동 학교→전의 공립보통학교→전의국민학교→전의초등학교

(19) 정○모(鄭炅謨)

❍ 창씨명 : 定村淸光

❍ 생몰년도 : 1895-?

❍ 출생지 : 충남 대전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 속 [내무과장] (1940~1942.09)

❍ 특이사항

– 조선쇼와(昭和)5년국세조사기념장 (1932.10)

(20) 정○성(鄭雲成)

❍ 창씨명 : 小松雲成

❍ 생몰년도 : 1888-1966

❍ 출생지 : 충남 천안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 서기(1917.04.~1921.04)

❍ 특이사항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수령 (1928.11)

(21) 채규항(蔡奎恒)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92-?

❍ 출생지 : 충남 공주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 속(1924~1928)

❍ 특이사항

– 조선쇼와(昭和)5년국세조사기념장 (1932.10)

– 훈8등 서보장(瑞寶章)(1933.10)

– 시정25주년기념표창 및 은배(銀杯)1개 (1935.10)

(22) 최주영(崔周榮)

❍ 창씨명 : 佳山榮伸

❍ 생몰년도 : 1899–?

❍ 출생지 : 충청남도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조치원경찰서 경부보 [사법계] (1929~1931)

❍ 특이사항

–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 에 게재

– 훈8등 서보장(瑞寶章) (1940.12)

(23) 한장현

❍ 창씨명 : 韓璋鉉

❍ 생몰년도 :

❍ 출생지 : 서울

❍ 활동내용

–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장(1926~1930)

❍ 특이사항

– 한국병합기념장 (1912.08)

(24) 한종수(韓綜洙)

❍ 창씨명 : 西原弘

❍ 생몰년도 : 1898–?

❍ 출생지 : 충청남도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조치원경찰서 경부보(1927~1928)

❍ 특이사항

–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 에 게재

– 훈8등 서보장(瑞寶章) (1941.09)

(25) 홍순욱(洪淳頊)

❍ 창씨명 : –

❍ 생몰년도 : 1886–?

❍ 출생지 : 충남 목천

❍ 활동내용

– 충청남도 연기군 서기(1911.11.~1912.11)

❍ 특이사항

–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28.11) 및 종6위 서위

– 조선쇼와(昭和)5년국세조사기념장 (1932.10)

3) 반민족행위자 관련한 잔재

(1) 권○수–권○용(동일인물) 군수 영세불망비, 선정비

❍ 조선시대에는 훌륭한 정치를 하고 떠나게 되면 비석을 세워 선정을 칭송하는 선정비, 덕을 칭송하는 송덕비, 그 덕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영세불망비를 세웠음

❍ 현재 전의면 행정복지센터 전정에 세워진 '애국지사 추모비' 1기와 선정비·영세불망비 등 6기 중 2기가 1900년대 초반 군수를 역임했던 A의 비석으로 확인됨

❍ 2기의 비석은 A의 선정과 영세불망을 바라고 있음

– A는 개명을 두 번 하여 하나인 선정비는 개명 전(권○수), 다른 하나인 영세불망비는 처음의 개명 후(권○용)에 비를 세움

– 비석들은 연기 향토사 연구소에서 전의, 연기관아 조사 시 발견되어 2011년 12월 현재의 전의 행정복합센터 전정으로 이전하여 세움





<그림 3-15> (좌)영세불망비와 (우)탁본본





<그림 3-16> (좌)선정비, (우)탁본본

❍ 송덕비 이전 기록비

– 연기향토사연구소에서 전의, 연기 관아 조사 시 발견되어 2011년 12월 현재의 전의 행정복합센터 전정으로 이전하여 세운다고 이전기록비에서 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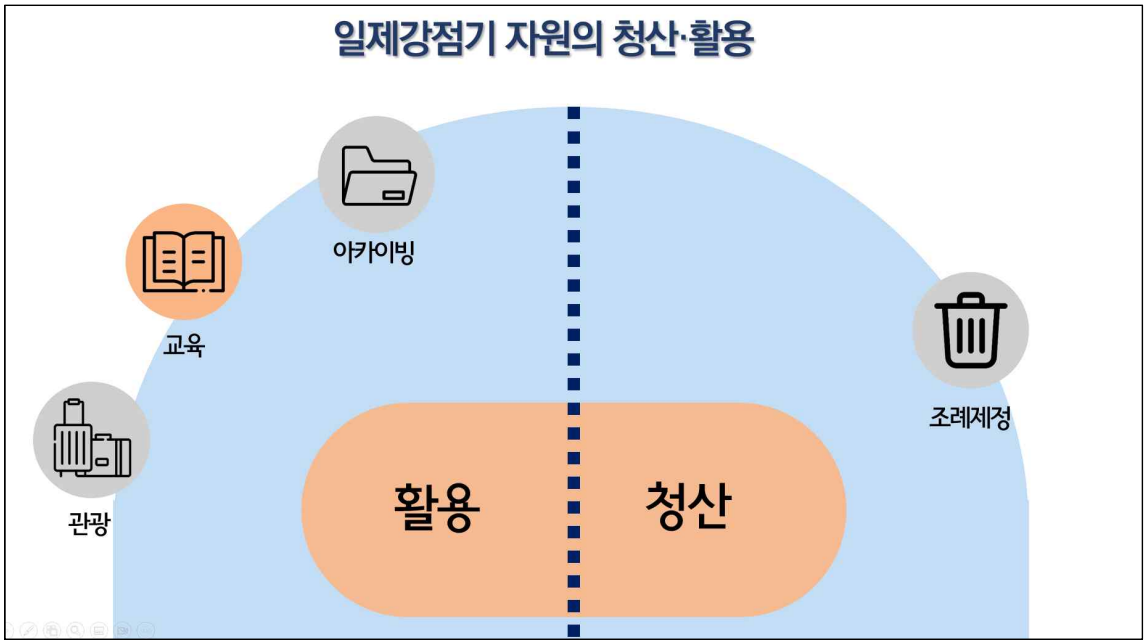
<그림 3-17> 송덕비 이전 기록비

Ⅳ

일제강점기 자원의 청산·활용

1. 일제강점기 자원 청산
2. 일제강점기 자원 활용

4장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의 청산·활용



<그림 4-1> 일제강점기 자원의 청산과 활용방안

○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을 민족주의론적인 관점에서의 '청산'과 문화소비론적인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과거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특히 일제가 식민을 위해 형성된 잔존물의 경우 무조건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콘텐츠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도 물리적 훼철 따위의 청산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두어 나타내고자 함

– 청산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함

– 활용은 아카이빙, 교육, 관광의 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절 일제강점기 자원 청산

1. 청산을 위한 움직임

1)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

- ❍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일제강점기 역사적 잔존물의 청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도 2019년 조례를 제정함
- ❍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임
- ❍ 현재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제주도, 제주도 교육청, 고양시, 부천시, 김해시가 있음

[표 4-1] '일제잔재 청산' 조례제정 현황

제정 기관	조례명	제정 시기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19.11.1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27.
경기도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21.05.2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21.11.15.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2021.08.05.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21.09.23.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2021.09.30.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2020.12.31.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04.09.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2020.12.31.
제주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19.07.10.
고양시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6.04.
부천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17.
김해시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2021.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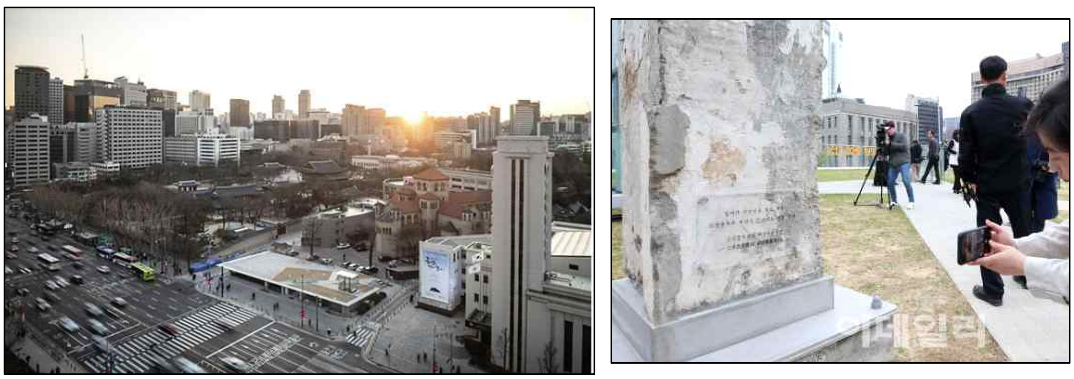
2) 일제잔재 청산 활동사례

(1) 서울시 사례

■ '서울마루'의 조성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체신국 건물이 있던 자리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14)]

- 1937년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가 있던 곳으로 1978년부터는 국세청 남대문 별관으로 사용
- 2015년에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서울마루' 조성
- '서울마루'는 2019년 3월에 개장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상 1층이자 옥상에 해당하는 800㎡의 공간
- 옛 체신국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을 남겨 근현대사의 흔적을 보존



자료 : 아주경제(좌), 이데일리(우)

<그림 4-2> (좌)서울마루 전경, (우)서울마루에 보존된 조선총독부 체신국 콘크리트 기둥

14) TBS뉴스, '일제 잔재 지우고 시민쉬터로...'서울마루' 개장' 2019년 4월 18일

■ 거꾸로 세운 동상

○ 한국통감 관저터에 하야시 곤스케 '거꾸로 세운 동상' 설치[15)]

– 한국통감관저터에 남아있던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동상의 흔적을 새 표석으로 활용

– '거꾸로 세운 동상'은 1904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곤스케 동상의 판석 3점을 활용하여 제작

– 광복이후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은 파괴되었으며 통감관저터 또한 철거되었음

– 철거기록이 없어 위치를 찾기 어려웠으나 2006년 예장동 2-1번지에서 '남작하야시곤스케군상'이라고 쓰여진 동상 좌대 판석 3점이 발견되어 통감관저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 아픈 과거를 잊지않으려는 불망의 거울을 만들어 내고자 남산 기슭에서 방치되었던 동상 잔해를 모아 거꾸로 세우고 아랫부분에 오석(烏石)을 배치하여 '남작하야시곤스케군상'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제작



자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식 블로그

<그림 4-3> (좌)통감관저터, (우)거꾸로 세운 동상

15) 서울시,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228298

(2) 충청남도의 사례

■ 충남도 일제강점기 일본식 지명 발굴[16)]

○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했던 일본식 지명 등을 발굴하고 우리 지명으로 복원 추진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일제잔재를 지우고 지명에 대한 전통성, 역사성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

–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 비하·한자 왜곡·단순화·일본식 한자·단순조합 지명 등 도내 3만 212건(고시 1만 2322건, 미고시 1만 7890건) 등을 조사할 계획

■ 충남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지속 추진과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17)]

○ 친일 행위 경력자가 작사·작곡한 교가 개정 추진

– 2019년 친일행위 경력자가 교가를 작사·작곡한 학교 24곳 중 1곳에 대해 개정 완료

– 2020년 10개 학교에 대해 개정 작업 진행

○ 일제 관련 용어에 대한 점검과 덕목 중심의 교운 개정 권장

– 학생 징계 규정에 남아있는 일제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점검

–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거리가 있는 덕목 중심의 교훈 개정을 권장할 예정

○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와 교육 자료 정리

– 2020년은 역사적 의미가 많은 해(경술국치 11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등)

(3) 광주광역시의 사례

■ 친일 잔재 조사 연구용역 진행

○ 광주에서는 2019년에 광주공원 사적비군에서 친일인물 관련 선정비를 발견한 이후 친일 잔재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 친일 잔재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친일 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친일 잔재 조사 및 실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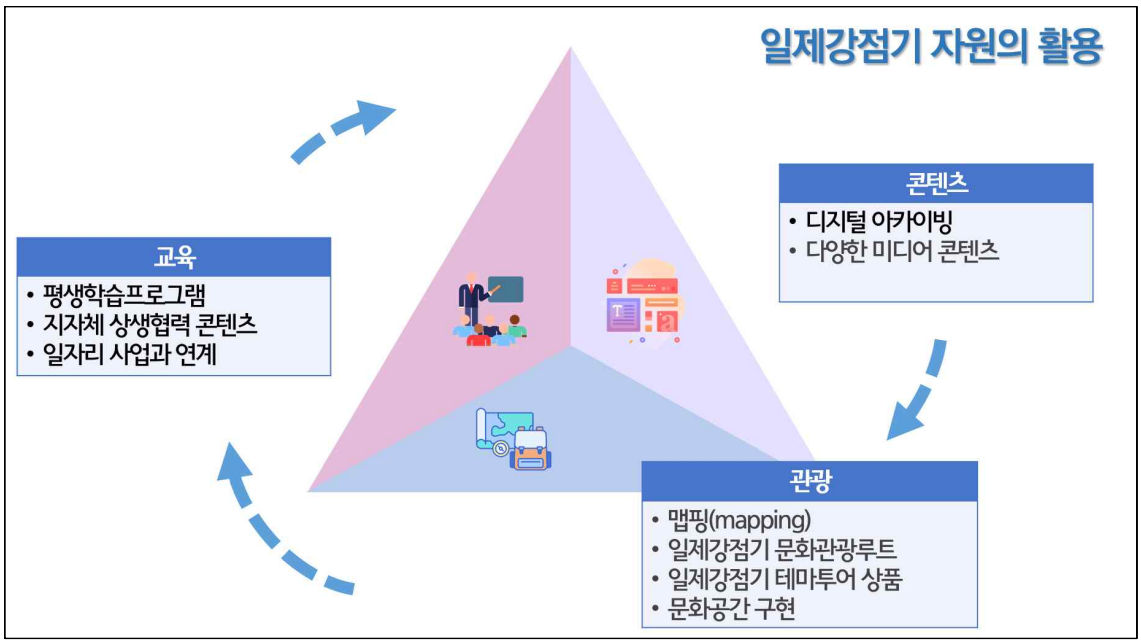
16) 충청남도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왜곡된 일본식 지명 바로 잡는다, 2020년 5월 18일
17) 대전일보, '충남교육청, 학교 일재 잔제 청산 계속한다' 2020년 1월 13일

– 친일인물 관련 비석(광주공원 사적비군, 광주향교 비각, 원효사 송화식 부도비·부도탑, 너릿재 유아숲공원 서정주시비), 식민 잔재 군사시설(벽진동 사월산 지하시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지하시설, 양림동 지하시설, 남광주시장 지하시설, 각종 군부대 시설), 산업시설(전남도시제사 주식회사), 가네보방적, 광주신사, 송성신사, 전라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 회사 등)으로 나타남

○ 친일 잔재 조사결과를 활용한 정책방안 제안

– 광주의 역사자원으로서 하나로 보고, 다크투어리즘 등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음

2절 일제강점기 자원 활용



<그림 4-4>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 활용 분류

1. 콘텐츠로서의 활용

1) 디지털 아카이빙

○ 세종시 행복나들이 누리집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빙 구현

– 세종시 행복나들이 누리집을 활용하여 생활 속 일제 잔재를 수집·기록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의 구현을 제안함

– 세종시 향토사가, 일제잔재 관련 전문가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적용을 제안함

– 지역 사회가 함께 일제잔재와 독립운동가 자원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음



<그림 4-5> 세종시 행복나들이 누리집 화면

■ 무형유산 지식백과 이치피디아(ICHPEDIA)의 사례

❍ ICHPEDIA는 한국의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를 웹 기반 백과사전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서,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가 개발한 시스템

– ICHPEDIA라는 이름은 ICH(Intangible Cultural Heritage)와 PEDIA(encyclopedia)를 결합해서 만들었고, 번역하면 무형유산 백과사전이라는 뜻으로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위키피디아(WIKIPEDIA) 방식의 지식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함

– 전북지역의 무형유산과 영남(전통의료・민간신앙), 경기(놀이・생활 전반)지역의 무형유산 일부 분야가 탑재되었음

– 현재는 30여 명의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있지만, 누구라도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며, 편집도 가능한 무형유산 아카이빙 시스템임



<그림 4-6> 이치피디아 누리집 화면

2)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구현

(1) 전시콘텐츠

○ 지역 내 전시시설과 연계를 통한 콘텐츠 구현

○ 세종시에는 세종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세종시립박물관, 세종문화예술회관, 박연문화관, 민간이 운영하는 연기향토박물관, 교과서박물관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 조치원 1927 아트센터, 조치원문화정원, 청자장 등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 더욱이 2025년에는 세종향토유물박물관이 고운동에 조성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음



<그림 4-7> (좌)세종시립민속박물관, (우)박연문화관

■ 전시 프로그램 ‘비물질 정거장’

❍ 2018년 10월 부강면 노호리 폐전철로에서는 비욘드아트스튜디오에서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문화재단에서의 후원을 통해 재활공간 발굴 프로젝트 비물질 정거장이라는 전시회가 개최되었음

❍ 노호리 폐전철 터널은 1904년 경부선이 개통되어, 일제강점기 사용되다가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쓰이지 않아 남아있는 일제 잔재임

❍ 폐전철 터널(동굴)이 과거의 공간과 무의 공간을 예술로 되살려 내고, 이것이 앞으로 더 나은 예술무대로서 생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으며, 이 전시회를 통해 동굴이 제공하는 고즈넉하면서도 이색적인 근대문화를 느낄 수 있음[18)]

– 이번 전시에는 이성용, 강준현, 신제현, 이설애, 윤성필 작가와 슈틸레앙상블과 박윤경 오카리니스트도 무대에 섬

– 이의연 화가와 노인호 조향사는 시각과 후각이 어우러지는 콜라보 작업을 선보이며, 김가을 작가·김진희 무용가·허지윤 바이올리니스트는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을 가지고 동굴 안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음

❍ 동굴 속은 암흑의 우주이고, 각기 다른 예술가들은 정거장이 된다. 관객은 100m에 달하는 동굴속으로 걸어들어가면서 작가들의 정신세계를 탐험할 수 있음



출처: https://blog.naver.com/sejong_story/221378118801

<그림 4-8> 비물질 정거장 전시회 모습

■ 조치원 굴다리(토끼굴)를 활용한 전시회, 읍내길 지금 道

❍ 조치원에는 조치원역 주변에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조치원 지하도가 있음

❍ 이 전시회는 아키오스코프와 ㈜PAL문화유산센터가 주최·주관하고 2021년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세시해 프로젝트」의 활동지원금으로 개최되었음

18) 세종포스트, 2018년 10월 15일자, 세종시 부강면 폐 기차터널, 예술 실험장으로

– 전시회 주제 :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조치원의 근현대 건축물을 재조명하다.

– 기간 : 2021.11.26.~2021.12.26.

– 장소 : 조치원 지하도(조치원읍 원리 154-1, 일명 토끼굴)



<그림 4-9> (좌)읍내길 지금道 포스터, (우)전시모습

■ 대전한밭교육박물관에 비스듬히 세운 황국신민서사비 전시기법

❍ 대전한밭교육박물관은 대전삼성초등학교 옆에 위치하며, 1992년 7월 10일 개관하였음

– 입구 야외전시장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황국신민서사지주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음

– 황국신민서사지주는 1940년에 제작되어 1995년 9월 대전 산내초등학교 교정에서 발견되어, 1997년 4월 한밭교육박물관으로 이관됨

– 이 서사지주를 비스듬하게 세운 이유는 비에 담긴 황국신민·내선일체 등의 의미를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전시기법임





<그림 4-10> (좌)황국신민서사지주, (우)안내판

(2) 영상 및 공연 등 미디어 콘텐츠

❍ 세종지역을 공간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맹의섭·홍일섭·이수욱·가네코 후미코 등의 독립운동가 이야기, 권○용 등 반민족행위자의 이야기르 활용하여 영상 또는 공연 등 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음

❍ 세종시의 영상콘텐츠 관련 비중은 국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영상대학교가 지역 내 소재하고 있으며, 미디어단지의 조성이 예정되는 등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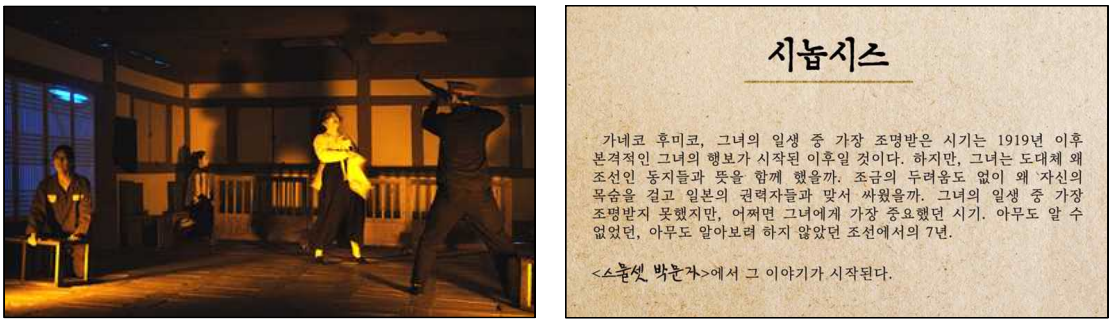
– 세종시 내에는 2개의 영화관련 사업체가 있음[19)]

– 한국영상대학교에는 영화영상과(2019년 40명 졸업/ 85.2% 취업), 영상촬영조명과(2021년 47명 졸업/ 83.9% 취업), 영상정보부사관과(2019년 30명 졸업/ 83.9% 취업), 영상편집제작과(2019년 48명 졸업/78.6% 취업), 방송미디어과(2019년 24명 졸업/73.7% 취업) 등의 관련학과가 있음

– 『세종시 문화콘텐츠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에는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로 IP 확장형 차세대 콘텐츠(세종지역특화 콘텐츠), 세종시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음악극 '스물 셋, 박문자'

❍ 극단 세종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부강면의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를 활용하여 음악극을 만들어서 공연함



<그림 4-11> (좌)공연 모습, (우)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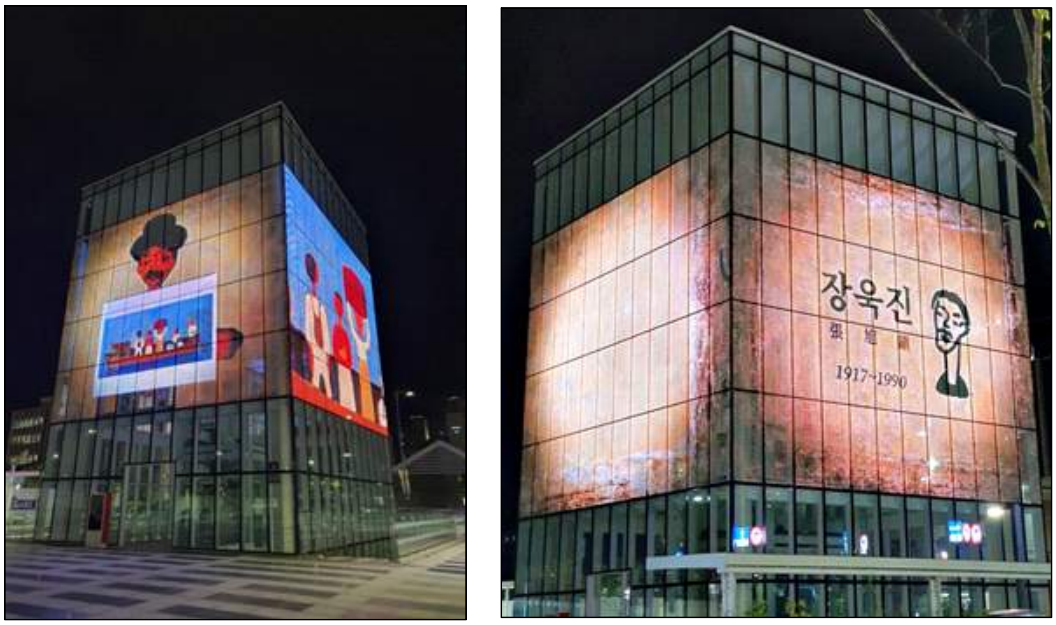
■ 장욱진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 세종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_스마트 미디어 큐브를 활용하여 '장욱진, 고향을 꿈꾸다– 더 드림 온 마이 홈(The dream on my home)'이라는 주제의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19) 2020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개최함

– 장욱진미술재단 기획, 국민대 하준수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3D모델링으로 40여점의 장욱진의 작품을 콘텐츠로 구현한 미디어아트임



<그림 4-12> 장욱진 미디어 아트 개최 당시 모습

2. 관광에서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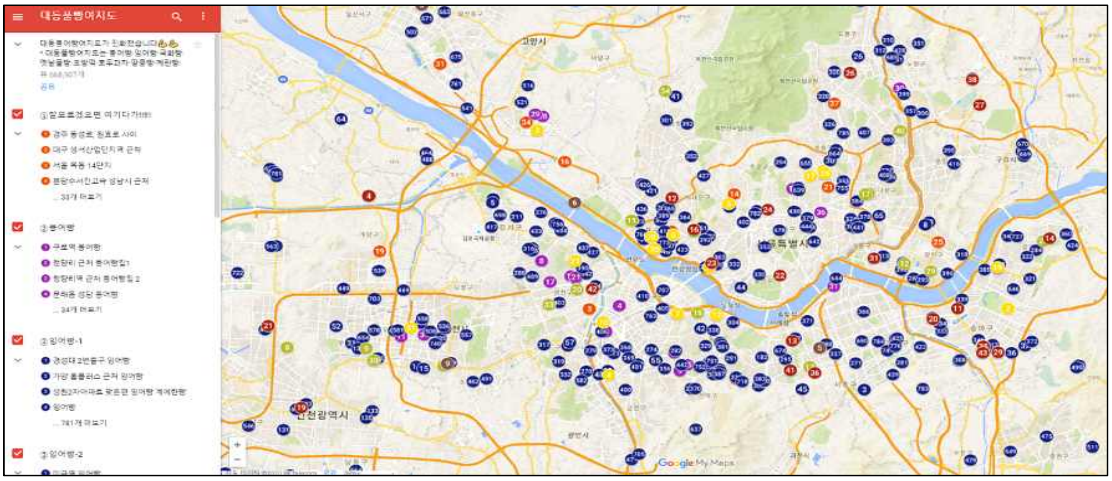
1) 맵핑(Mapping)

(1) 관광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도 제작

- ○ 일제잔재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지도 제작을 제안하며, 이는 관광의 목적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 ○ 오프라인 형태의 지도는 기존 관광지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지도 목적의 관광지도를 제작할 수 있음
- ○ 온라인 형태의 지도는 디지털 아카이빙과도 연관되며, 특히 최근 주목받는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형식의 스마트 지도 등으로 구현할 수 있음

■ 대동풀빵여지도 사례

- ○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등 풀빵은 겨울을 대표하는 간식이지만, 사먹으려면 의외로 노점상 찾기가 쉽지 않아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커뮤니티 매핑의 한 형태임
- ○ 전국 팔도의 풀빵집 위치를 표시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현



<그림 4-13> 대동풀빵여지도 모습

2)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 ○ 조치원읍에 산재하였지만, 현재 방치된 적산가옥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조성을 제안함
  - 현재 조치원읍의 적산가옥은 건물주의 무관심과 개발논리에 의해 시나브로 철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같은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조성을 제안함



<그림 4-14> 일제강점기 주재소 건물을 활용한 '다방' 카페(연서면 소재)

■ 대전 소제동 도시재생 사례

○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철도 직원관사 40여 채가 남아있는 마을로서, 전국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규모의 관사촌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와 함께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음

○ 소제동 관사촌은 대전역 일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보금자리로서 마치 산업화 이전의 대전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며, 일제강점기와 근대, 현대를 관통하는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

○ 소제동은 중국 쑤저우(蘇州) 지방의 호수에 견줄 만큼 아름답고 크다 하여 이름 붙은 소제호(蘇堤湖)가 있던 곳에서 유래하며, 호수가 사라진 자리에 낡고 거친 지붕들이 회색빛 물결을 이루고 있음

○ 최근에는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관광 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들에게 새로운 레트로, 뉴트로(New-Tro)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림 4-15> 소제동 골목길과 카페

3) 관광콘텐츠 개발

(1) 일제잔재 흔적 찾기 콘텐츠

○ 네거티브 유산 및 독립운동 자원의 연계를 통한 다크투어리즘에 기반하는 관광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함

○ 세종시 누리집에 나와 있는 여행 코스와 같이 일제강점기 잔재·독립운동가 자원을 연계하여 이와 관련한 코스 개발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1) 누리집에 탑재한 지도를 활용하여 FIT(Free Independent Traveler)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형태

(2) 사전 예약제를 통해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여행하는 형태

(2) 일제강점기 자원 콜라보 테마 투어 상품 개발

○ 사실과 허구(fiction)를 결합한 스토리메이킹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함

– 대전시의 경우, 여행주간의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이 사랑한 반고흐, 세계가 사랑한 이응노'라는 테마의 아트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한 적이 있음

– 세종시 일제강점기 자원을 토대로 현대전 인물, 허구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아트 투어 상품 개발, 세종시 문화공간(세종시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을 배경으로 기획·운영을 제안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남, 공주와도 연관시켜 확장 도모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청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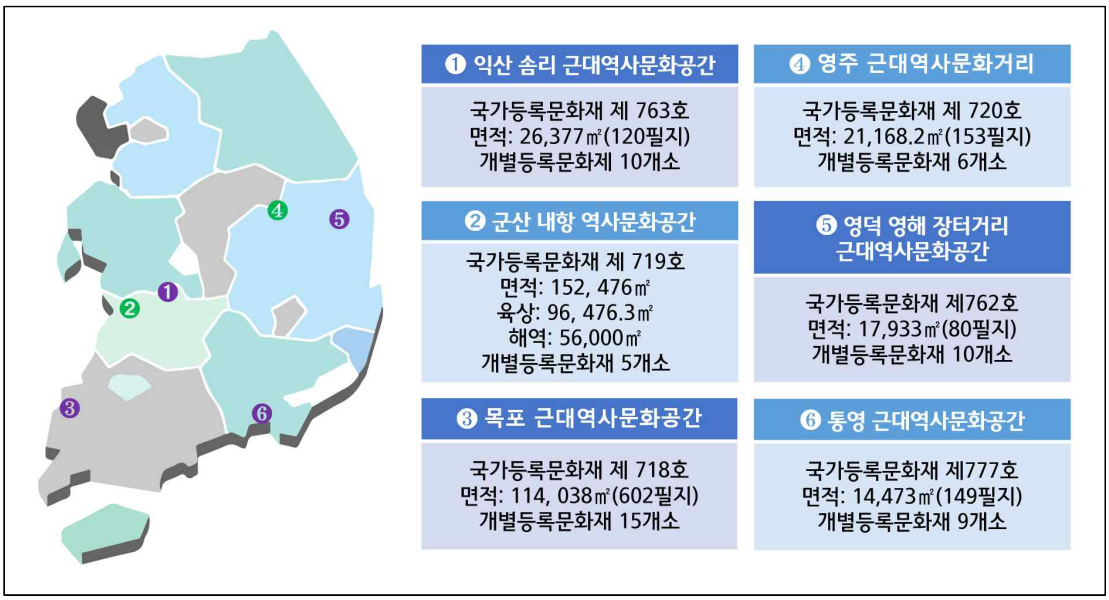
<그림 4-16> 대전아담한투어 진행 모습

4)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기에 형성된 마을, 거리 등의 역사문화경관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제도를 가리킴

– 2018년 6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됨

– 2019년에는 익산, 영덕, 통영 3개소를 추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시킴



<그림 4-17>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 세종시 조치원 지역은 일제강점기 조치원역의 부설로 인해 광목 유통의 중심지이자, 복숭아의 산지로서 많은 부흥을 한 곳으로, 현재에도 적산가옥 등이 많이 남아있음

– 조치원의 경우 근대유산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산재하는 느낌이라 시범사업 공모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3. 교육에서의 활용

◆ 교육자료 활용의 전제
▸일제강점기 자원 보전과 교육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를 이끈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
– 일제 강점기 잔존물(잔재)에 대한 시민 사회와의 합의 도출 과정이 전제

1) 지역학적 관점에서 지역사 교육

○ 지자체마다 지역의 정체성 구현과 정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학'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역학 활동과 연계한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홍익대 세종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함께 '세종의 재발견'이라는 시민·학생 대상의 지역학 프로그램을 15주차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 일제잔재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을 15주차 강의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구현하는 방안과 함께 세종시의 근대기를 고찰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이 필요함

2)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

○ 일제잔재, 독립운동가 등 세종시의 일제강점기를 관통하여 이해하는 각계 각층의 인력 양성을 제안하고자 함

○ 단순히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방안 수립 필요

– 우리 고장의 역사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어린이 도슨트 양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함

○ 신중년-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3) 알림판 또는 단죄문 설치

○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치욕과 수탈의 역사이지만, 이 또한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므로, 이를 더욱 드러내어 교훈으로 삼아 자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알림판 또는 단죄문 설치를 통해 올바를 역사를 알릴 수 있음

○ 광주에서는 과거 광주신사 터 앞, 광주 금선사, 미당 서정주 시인 동상 앞 등 일제 잔

재 주변에 죄를 처단하는 '단죄문'을 설치하였음





<그림 4-18> (좌)광주신사 계단, (우)미당 서정주 동상 주변의 단죄문

- 하지만 '단죄문' 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안내판' 설치를 제안함
- 현재 충북대학교 야외박물관에는 충북대를 청주로 유치한 전임 지사 김학응의 송공비가 세워져있지만, 김학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힌 안내판도 최근에 설치하였음





<그림 4-19> (좌)전임김학응지사대학이전송공비와 (우)안내판

V

연구요약과 정책건의

1. 연구요약
2. 정책건의

5장 연구요약과 정책건의

1절 연구요약

1. 일제강점기, 우리 세종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 ○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조선은 일본 및 강대국들에 의해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고, 을사조약(1905년, 외교권 박탈), 군대해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은 점차 잃어감
- ○ 1910년 경술국치를 통해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5년 광복까지 많은 시간을 '일제강점'을 당하였음
- ○ 일제강점기 동안 당했던 치욕의 역사는 독립 이후,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잔재를 양산하였으며, 이들은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병들고 피폐하게 하고 있음
- ○ **일제는 우리나라를 수탈과 개발을 하고자 했으며, 식민정신을 이식시키기도 하였고, 효율적인 식민지 건설을 위해 일상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정착 생활을 이어나갔음**
- ○ 이 연구는 행정수도를 꿈꾸고 있는 세종시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서, 일제강점기 자원의 잔재를 ①수탈과 개발의 잔재 ②식민정신의 이식 흔적과 잔재, ③일상과 정착의 잔재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함
- ○ **이 시기 지역민들은 독립운동과 투쟁으로서 나라를 구국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변절과 부역으로서 반민족행위를 일삼기도 하였음**
-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종지역의 지역민들이 ①저항과 항거로서 대응하고, ②배신과 변절로서 대응한 양상을 구명하고자 함
- ○ 마지막으로 최근의 일제 잔재에 대한 관념이 무조건적인 훼철·청산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교훈으로 여기자는 패러다임 속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음

2.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잔재는 어떻게 존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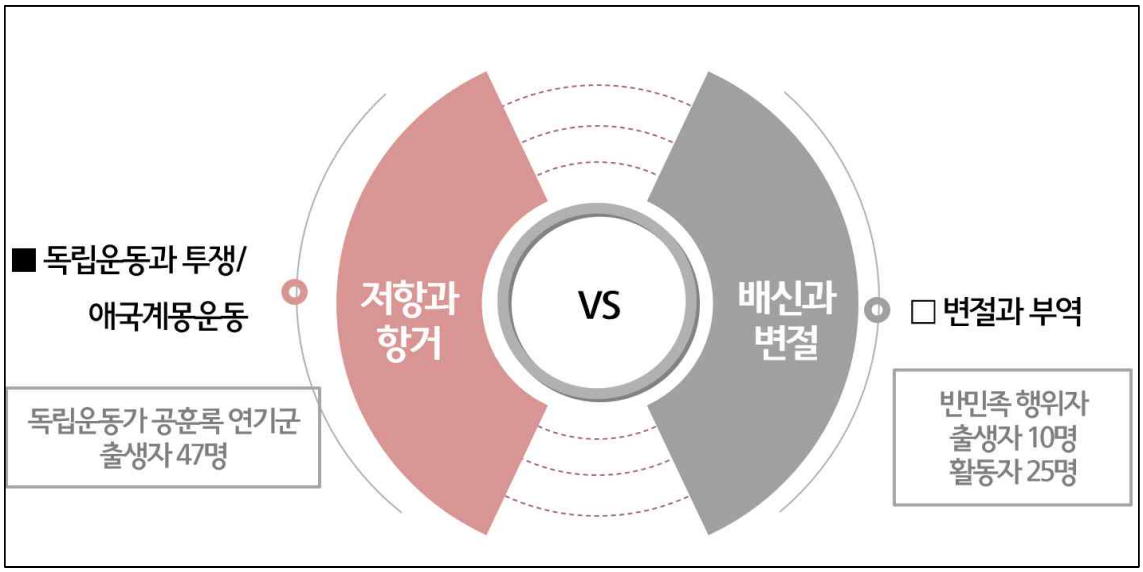
- ○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①수탈과 개발의 잔재, ②식민 정신 지배와 흔적의 잔재, ③일상과 정착의 잔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음

[표 5-1] 세종지역 일제 잔재 현황

분류	세부 항목	장소(현재)	내용
수탈과 개발의 잔재	사방사업 기념비	조치원읍	사방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
	중석광산(2기)	부강면	중석을 캐는 광산
	폐전철 터널	부강면	경부선 철로의 이동으로 발생
	농장비석	금남면(연서면)	1920년대 천년농장비석
식민정신 이식 흔적과 잔재	연기신사	조치원읍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신사
	신명신사(4기)	전의, 금남 등	동네 단위의 신사
	황국신민서사비(2기)	남면(연서면)	초등학교에 세워진 황국신민서사비
	해방기념비	금남면	황국신민서사비를 활용한 비석
일상과 정착의 잔재	적산가옥	조치원읍	일본인들이 살았던 가옥

3.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은 어떠했을까?

○ 일제강점기 지역민들은 저항과 항거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일제에 협조하여 변절과 부역으로서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로 나타났음



<그림 5-1> 세종지역 일제강점기 지역민의 대응양상

4. 그렇다면, 세종지역 일제 잔재·독립운동가 자원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세종지역의 일제강점기 잔재와 독립운동가 자원의 청산에 관해서는 조례 제정 실태를 살펴보고, 서울시·충청남도·광주광역시의 사례를 고찰하였음

○ 세종지역의 일제잔재·독립운동가 자원의 활용은 콘텐츠, 관광, 교육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음

[표 5-2] 세종지역 일제 잔재 현황

분류	세부 항목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구현- 전시, 공연, 미디어아트 등
관광	맵핑 : 관광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도 제작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관광, 투어 프로그램 개발 - 일제잔재 흔적찾기, 콜라보 테마 투어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교육	지역학전 관점에서의 지역사 교육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
	알림판 또는 단죄문 설치

2절 정책건의

1. (단기) 반민족행위자 영세불망비에 대한 알림판 설치

- ○ 전의군수를 역임했던 과거 반민족행위자 권○용(권○수)에 대한 행적을 소상히 기록한 알림판을 전의면사무소 영세불망비·송공비 주변에 설치를 제안함
- ○ 알림판 설치에 앞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으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3월 1일 또는 8월 15일 등을 택하여 제막식 퍼포먼스와 함께 설치를 제안함

2. (단기)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 '세종학'의 강좌로 삽입

- ○ 현재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세종학 프로그램인 '지역의 재발견' 프로그램으로서 일제잔재·독립운동가 자원을 다루는 과정이 필요
-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재발견'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방안
- ○ 일제잔재·독립운동가 내용을 포함하는 세종시 근·현대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음

4. (중기) 독립운동가 맹의섭에 대한 선양사업

- ○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정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맹의섭은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못 받고 있으며, 그의 묘소는 비석 1기 없는 초라한 형태로 남아 있음
- ○ 따라서 맹의섭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을 진행하되, 단기적으로는 묘소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묘비와 알림판 등의 조성을 제안함
- ○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세종문화원-세종향토사연구소-광복회-대전세종연구원과 협업체계에 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맹의섭 선생님이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

4. (중기) 조치원 적산가옥 연구가 필요

- ○ 최근 조치원지역 내 적산가옥은 시나브로 멸실 되고 있으므로, 적산가옥의 보존을 위한 연구가 필요
- ○ 2018년에 간행된 세종시 건축자산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민가 건축물이 많이 누락된 상태이므로, 조치원 지역의 적산가옥에 대한 기록화 사업은 필요



<그림 5-2> 최근에 멸실된 식산은행(조치원역) 직원관사

5. (장기) 세종시 근현대 기념 공간형 콘텐츠 조성

○ 세종지역의 근대와 현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근현대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형 콘텐츠의 조성을 제안함

참고문헌

이연경(2015), 「사라져가는 '무명씨건축'들을 위하여」, 『건축』 제59권 제54호.
최병택(2019), 일제 강점기 사방사업의 전개와 그 문제점, 역사교육, 150호, p.189~220.
한상범(2002), 「21세기 민족문제와 일제잔재 : 친일파의 지배구조 청산」, 『철학과현실』 53호, 125~133쪽.
동아일보, 「순회탐방(삼백칠십이) 진보는 속도이나 기실일인촌」(2), 1927년 7월 14일자.
충청남도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왜곡된 일본식 지명 바로 잡는다, 2020년 5월 18일.
대전일보, '충남교육청,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계속한다', 2020년 1월 13일.
세종포스트, 세종시 부강면 폐 기차터널, 예술 실험장으로, 2018년 10월 15일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http://sejong.grandculture.net/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sj-ur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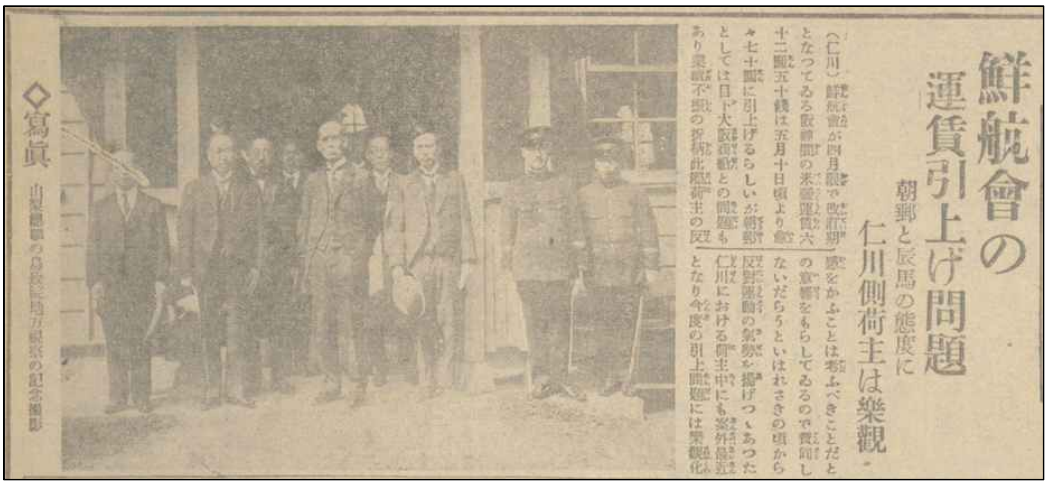
부록

1. 그 밖에 일제강점기 자료
2. 독립운동가 공훈록과 대전 현충원 묘소 사진

1. 그 밖에 일제강점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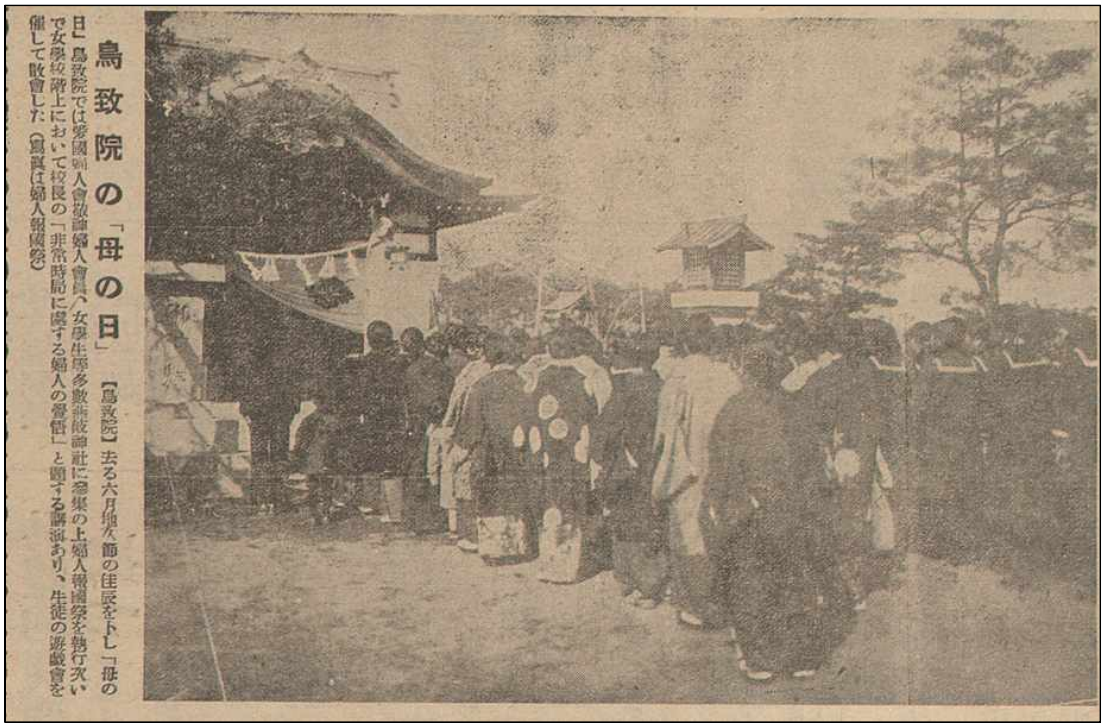


김자교장선생 송별기념(소화 14년 4월 10일)_1939년



조선총독부 제4대 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치원 지방 연기방문(연기군청 추정) 기념사진

출처 :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 1929년 4월 26일 신문기사 /



鳥致院の「母の日」【鳥致院】去る六月第二日曜の佳辰を卜し「母の日」鳥致院では愛國婦人會故論婦人會員(女學生學多數出席)社に參集の上婦人報國祭を執行次いで女學校講上において校長の「非常時局に處する婦人の覺悟」と題する講演あり、生徒の遊戲會を催して散會した(寫眞は婦人報國祭)

조치원 「어머니의 날」 鳥致院の「母の日」 _ 어머니의 날을 맞아 조치원 연기신사에 모여 있는 여학생들

출처 :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 1936년 3월 8일 신문기사

2. 독립운동가 공훈록과 대전 현충원 묘소 사진

1) 곽한소(郭漢紹)



곽한소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2~1927
- ❍ 운동계열 : 의병
- ❍ 포상년도 : 2015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05년 의병을 일으키자는 창의격문(倡義檄文)을 배포하고, 1906년 상소문과 성토문 등을 작성하였다. 1905년 음력 12월 5일 충남 노성(魯城)에서 최익현(崔益鉉)이 작성한 일본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노성궐리사강회시서고조약(魯城闕里祠講會時誓告條約)」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조약문 수십 통을 각 군 향교에 발송하였으며, 1906년 1월 30일 궐리사의 유림집회(儒林集會)에 참석하였다. 1906년 2월 11일 고석진(高碩鎭)·이양호(李養浩)·조영선(趙泳善) 등과 함께 최익현 명의의 상소문과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성토하는 글, 이남규(李南珪) 등에게 창의 참여를 권하는 글을 보냈다. 1906년 음력 윤4월 전북 태인(泰仁)에서 창의한 최익현의진에 합류하려 했고, 홍주성전투(洪州城戰鬪)에서 패배한 민종식의진(閔宗植義陣) 등 의병잔여세력 규합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敬菴全集(郭漢紹, 1996) 제1집 60, 62면
國譯 敬菴全集(郭漢紹, 2013) 제3집 256~260, 262~263, 266~268, 270~271, 276면
習齋實記(최제학, 1963) 上권 19면
遯軒遺稿(임병찬, 1957) 제6권 181면

2) 권혁기(權赫基)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9~1933
- ❍ 운동계열 : 3·1 운동
- ❍ 포상년도 : 200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3묘역-592
  - – 안장일 : 2007.10.09

(2) 활동내용

1919년 3월 29일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 청송리(靑松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주민들에게 만세시위를 벌이자고 권유하여 20여 명의 주민이 모이자, 이들을 인솔하여 내동산(內洞山)으로 올라가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18)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114면



권혁기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 김봉식(金鳳植)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5~1934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8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9년 3월 31일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각 동리에서는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방축리(方丑里)에서는 밤 8시경 약 30명이 황우산(黃牛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복통리(洑通里)에서도 밤 8시경 약 10명이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양화리(陽化里)·진의리(眞儀里)·송담리(松潭里)에서도 횃불시위가 일어났다. 진의리의 김봉식, 월산리(月山里)의 임영복(林永福), 양화리의 조의순(趙義淳)과 임덕문(林德文)은 이덕민(李德敏)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아월산(雅月山)에 올라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이후 진의리 동리 뒷산에서 횃불시위를 벌이고 다시 송담리로 가서 횃불시위를 벌였다. 김봉식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4) 김재황(金在璜)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917~2004
- ❍ 운동계열 : 학생운동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3묘역—145
  - 안장일 : 2004-12-09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연희전문학교 재학중인 1939년 12월에 동교생 김상흠(金相欽)·서영원(徐泳源)·김영하(金永河)·이동원(李東元)·민영로(閔泳魯) 등과 함께 시내 사직동 소재 윤주연(尹柱淵)의 집에 모여 항일결사 조선학생동지회(朝鮮學生同志會)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동지회는 독립투쟁을 3·1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거행하기로 하고 1942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동안에 이들은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로 하였으며, 동경유학생 등 해외유학생과도 연락을 맺어 거국적인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들과 함께 1940년 2월부터 1941년 7월까지 남한산성·냉천동약수터·연희전문학교 뒷산·벽제관 등 각지에서 모임을 갖고 독립의식을 길렀으며, 동지규합 및 조직확대에 힘을 쏟아 전국 도청소재지 및 주요도시에 하부조직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1941년 7월에 동회의 하부조직인 원산상업학교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동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동년 9월에 일경에 붙잡혔고, 연희전문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붙잡힌 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3월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연희전문학교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리는 뜻으로 추가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연희전문학교 학적부



김재황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5) 박노일(朴魯一)



박노일

(1) 인물개요

❍ 생몰년 : 1923~1976

❍ 운동계열 : 광복군

❍ 포상년도 : 1990

❍ 포상훈격 : 애족장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2) 활동내용

1919년 3월 29일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 청송리(靑松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주민들에게 만세시위를 벌이자고 권유하여 20여 명의 주민이 모이자, 이들을 인솔하여 내동산(內洞山)으로 올라가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18)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114면





박노일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6) 박장희(朴壯熙)



박장희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5~1950
- ❍ 운동계열 : 만주방면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일제의 무력침공으로 국권이 침탈되자 1915년초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독립군에 편입되어 무력항쟁에 참가하였다. 1917년 군자금 조달의 임무를 띠고 국내에 특파되어 충청도에서 광복단(光復團)의 장두환(張斗煥)동지와 협조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뜻있는 애국청년들을 만주로 보내어 독립군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복단의 활발한 활동이 마침내 일경에 노출됨에 따라 1918년에 그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다. 광복 후 국군이 창설되자 군에 입대하여 육군대위로 복무중 6.25전쟁으로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34면
독립운동공훈사(한국민족운동연구소) 140면





박장희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7) 안광조(安光祚)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4~1920
- ❍ 운동계열 : 의병
- ❍ 포상년도 : 1996
- ❍ 포상훈격 : 독립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07년 이래 1910년대까지 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에서 항일전을 전개한 채응언(蔡應彦) 의병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 일제는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대한제국의 군대를 같은 해 8월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진에 가담함으로써 전국적인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채응언 의병장은 대한제국의 육군보병부교(陸軍步兵副校) 출신으로 1907년 군대해산령이 내리자 의병에 투신하였다. 그리하여 이진룡(李鎭龍)의병장 휘하의 부장으로 평남·강원도 일대를 무대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 1908년에는 황해도 안평(安平)의 순사주재소와 수안(遂安)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여 일본 헌병을 사살하였고 또한 함남의 마전도 순사주재소를 급습하여 많은 무기를 노획하였다. 그 뒤 1911년 김진묵(金溱默) 의병장의 부장으로 부하 300~400여 명을 휘하에 두고 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각도를 신왕귀래(神往鬼來)하면서 항일전을 전개한 바 있다. 1913년 6월 3일 밤에는 황해도 대동리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여 일본군을 사살하고 일군수비대를 불질러 일본군 수명을 부상케 하였다. 한편 오승태(吳承泰)와 합세하여 선암(仙岩)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1915년에는 평남 성천군 옥정리(玉井里) 산기슭에 근거지를 두고 부유한 한인에게 항일독립사상을 고취시켜 군자금 조달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격렬한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는 채응언의 활약으로 인해 200여 명 이상의 일본헌병과 부일한국인, 밀정 등이 처단당하자, 일제는 그를 체포하고자 소위 '적괴 채응언 수색대'를 조직하였으며, 현상금 280원을 걸어 일반인

에게 밀고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안광조는 이와 같이 신출귀몰하게 활동하던 채응언의 진에 소속되어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15년 7월 채응언 의병장 순국 후에도 군자금모집 등 활동을 계속하던 그는 1919년 체포되어 1919년 12월 12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받고 1920년 7월 형집행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1920. 8. 9)
判決文(1919. 12. 12. 平壤地方法院)

8) 오강표(吳剛杓)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43~1910
- ❍ 운동계열 : 계몽운동
- ❍ 포상년도 : 1962
- ❍ 포상훈격 : 독립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3묘역—566
  - 안장일 : 2007-09-20

(2) 활동내용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몰두한 유생으로서,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즉각 일제침략을 규탄하고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5적의 처형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수리를 거절하여 고종에게까지는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죽음으로써 을사조약과 일제침략을 항의하기 위하여 다량의 아편을 먹었으나 절명 직전에 가족에 의하여 구명되었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여 나라가 망하자 일제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절명사(絶命詞)를 지어 가지고 금동서사(錦洞書社)의 동지 최종화(崔鍾和)를 방문하여 망국의 울분에 함께 통곡하고 조천(鳥川)에서 죽겠다고 하니 최종화가 이곳은 선비가 죽을 곳이 못된다고 하므로, 그러면 바로 명륜당(明倫堂)으로 가겠다고 하고, 연기의 조상들의 묘에 곡하여 고별하고 청주(淸州)로 가서 아들과 이별하고, 공주(公州) 명륜당으로 들어가서 절명사를 벽에 붙이고 일장 통곡한 후에 강학루(講學樓)에서 목을 매어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73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91면
기려수필 163 164 168면
추담별집(상)
한국독립운동지혈사(박은식) 30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43면

*기타사항
2003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오강표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9) 유시풍(劉時豊)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9~1947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6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기군 북면(北面)·서면(西面)·남면(南面)의 3개면 10여개 리(里)에서는 인접한 충북 청주군(淸州郡) 강내·강외·옥산면 등과 연합하여 수천 명이 대대적인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유시풍이 거주하던 남면에서는 3월 31일에 이어 4월 1일에도 횃불시위가 계속되었다. 먼저 송담리(松潭里)에서 밤 9시경 서운산(瑞雲山) 위에서 마을 주민 약 30명이 횃불을 놓고 약 1시간 동안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쉬도록 외쳤다. 이어 유시풍은 갈운리(葛雲里) 주민 약 150명과 함께 황우산(黃牛山)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유시풍은 주동 인물로 체포되었다. 유시풍은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56~1157면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5면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21)

10) 유진광(兪鎭廣)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3~1944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3묘역—281
  - – 안장일 : 2006-06-22

(2) 활동내용

1919년 3월 30일 충남 연기군 서면(西面) 기룡리(起龍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밤, 동리 사람들에게 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동리 뒷산에 올라가 인근 지역의 횃불시위에 동조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유진광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11) 유진만(兪鎭萬)



유진만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912~1966
- ❍ 운동계열 : 중국방면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국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32년 1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김철(金哲)·이덕주(李德柱)·유상근(柳相根) 등과 함께 애국청년들의 항일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한인 청년당(韓人靑年黨)을 조직하는 한편 김구(金九)가 주도하는 한인 애국단(韓人愛國團)에도 가입하여 무장의열투쟁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동년 3월 조선총독 우원일성(宇垣一成)을 비롯한 일제고관을 주살하기 위하여 권총 2정을 소지하고 이덕주(李德柱)와 함께 국내로 파견되어 계획된 공작을 실행하다가 1932년 4월 7일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2년 7월 1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596·825·914面
東亞日報(1932. 7. 18)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編)(國會圖書館) 732·788·793·798·799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1輯 125·127面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2卷 495·496·498·507·511·517·529·548·551·629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611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7卷 769面

12) 윤상억(尹相億)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9~1992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정리의 만세시위는 이수욱이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을 다녀온 뒤 3월 7일부터 유상억·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에 윤상억 등은 시장에 이르러 미리 연락하여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4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13) 윤상원(尹相元)



윤상원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5~1973
- ❍ 운동계열 : 3.1운동

❍ 포상년도 : 1992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4묘역—451

– 안장일 : 2011-11-24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터에서 이수욱(李秀郁)·추경춘(秋敬春)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목판(木板)으로 태극기 150여매를 만들어 장터로 통하는 갈정동(葛井洞) 고개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주면서 정의장터에 이르러 이수욱(李秀郁)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엣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공주복심법원과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19. 5. 9 경성복심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연기군지(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88. 12. 31) 113~116면



윤상원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14) 윤상은(尹相殷)



윤상은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2~1938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정리의 만세시위는 이수욱이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을 다녀온 뒤 3월 7일부터 유상억·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에 윤상은 등은 시장에 이르러 미리 연락하여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19. 4. 9. 공주지방법원)
연기군지(연기군지편찬위원회) 97·98면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15) 윤자명(尹滋明)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8 ~ 미상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0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고종의 인산을 지켜보기 위해 상경하였던 이수욱(李秀郁)은 귀향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전의면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을 돌며 추경춘(秋敬春),윤자벽(尹慈壁)을 비롯한 주민들과 거사준비를 협의한 끝에 3월 13일 전의면 읍내 시장 장날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태극기를 몰래 가지고 가 시장에서 연설할 때,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읍내를 행진하자는 것이었다. 거사 당일, 이수욱 일행은 갈정리(葛井里) 언덕에서 역할 분담을 한 후, 장터로 향하였다. 시장에 도착한 일행은 계획대로 연설후 태극기를 나눠주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윤자명도 윤자벽으로부터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읍내로 시위행진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윤자명은 1919년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4. 9)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新韓民報(1919. 6. 24)

16) 윤자벽(尹滋璧)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4 ~ 1930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6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리 전의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전의면 신정리(新井里)에 거주하는 이수욱(李秀郁)은 서울에서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에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귀향하여 윤자벽을 비롯한 마을 인사들과 1919년 3월 13일 장날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미리 제작하여 거사 당일 시장 통로인 갈정동(葛井洞) 고개에서 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시장에 이르러 이수욱이 연설을 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꺼내어 휘두르며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각지를 행진하였다. 헌병분견소의 헌병과 조치원에서 급거 출동한 철도원호대원(鐵道援護隊員) 20여 명이 합세하여 윤자벽을 비롯한 주동 인물 8명을 체포하였다. 윤자벽은 1919년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9)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9)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57~1159면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1~112면

17) 윤자훈(尹滋勳)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4~1936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6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리 전의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전의면 신정리(新井里)에 거주하는 이수욱(李秀郁)은 서울에서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에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귀

향하여 윤자훈을 비롯한 마을 인사들과 1919년 3월 13일 장날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미리 제작하여 거사 당일 시장 통로인 갈정동(葛井洞) 고개에서 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시장에 이르러 이수욱이 연설을 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꺼내어 휘두르며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각지를 행진하였다. 헌병분견소의 헌병과 조치원에서 급거 출동한 철도원호대원(鐵道援護隊員) 20여 명이 합세하여 윤자훈을 비롯한 주동 인물을 체포하였다. 윤자훈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11~412면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9)
每日申報(1919. 4. 20)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57~1159면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1~112면

18) 이광희(李光熙)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5~1943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정리의 만세시위는 이수욱이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을 다녀온 뒤 3월 7일부터 유상억·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에 이광희 등은 시장에 이르러 미리 연락하여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 행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이광희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19) 이덕민(李德敏)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7 ~ 1924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8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9년 3월 31일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각 동리에서는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방축리(方丑里)에서는 밤 8시경 약 30명이 황우산(黃牛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복통리(洑通里)에서도 밤 8시경 약 10명이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양화리(陽化里)·진의리(眞儀里)·송담리(松潭里)에서도 횃불시위가 일어났다. 진의리의 김봉식(金鳳植), 월산리(月山里)의 임영복(林永福), 양화리의 조의순(趙義淳)과 임덕문(林德文)은 이덕민 집에 모여 독립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주민 1백여 명과 함께 아월산(雅月山)에 올라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이들은 진의리 동리 뒷산에서 횃불시위를 벌이고 다시 송담리로 가서 횃불시위를 벌였다.

이덕민은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4. 18)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4~115면

20) 이상건(李相健)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8~1942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0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4묘역—529
  - 안장일 : 2012-0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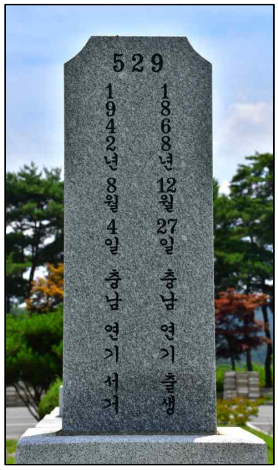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고종의 인산을 지켜보기 위해 상경하였던 이수욱(李秀郁)은 귀향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전의면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을 돌며 추경춘(秋敬春),윤자벽(尹慈壁)을 비롯한 주민들과 거사준비를 협의한 끝에 3월 13일 전의면 읍내 시장 장날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태극기를 몰래 가지고 가 시장에서 연설할 때,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읍내를 행진하자는 것이었다. 거사 당일, 이수욱 일행은 갈정리(葛井里) 언덕에서 역할을 분담한 후, 장터로 향하였다. 시장에 도착한 일행은 계획대로 연설 후 태극기를 나눠주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상건도 이수욱으로부터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읍내로 시위행진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이상건은 1919년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4. 9)
每日申報(1919. 4. 20)
新韓民報(1919. 6. 24)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57~1159면





이상건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21) 이수양(李秀陽)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9~1977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4묘역—364
  - 안장일 : 2011-04-18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정리의 만세시위는 이수욱이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을 다녀온 뒤 3월 7일부터 유상억·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에 이수양 등은 시장에 이르러 미리 연락하여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 행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이수양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22) 이수욱(李秀郁)



이수욱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0~1970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2) 활동내용

충청남도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2월 28일 광무황제의 국장(國葬)을 참배(參拜)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곳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를 보고, 고향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켜야겠다고 결심하고 3월 6일 귀향하였다. 귀향 즉시 먼저 이웃에 사는 추경춘(秋敬春)을 만나서, 그 취지를 설명하여 같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한 다음 3월 7일에는 두 사람이 동리사람 박성교(朴聖敎)·추득천(秋得天)·윤자벽(尹滋璧)·윤상원(尹相元)·윤자훈(尹滋勳)·윤상억(尹相億)·김재주(金在周) 등과 함께 읍내리 장날인 3월 13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시

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3월 8일에는 김병옥(金炳玉)의 집에서 이장희(李章熙)·이광희(李光熙)·정원필(鄭元弼) 등과 만나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터에서 시위군중들에게 나누어 줄 태극기 약 150매를 목판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거사일인 3월 13일 오전 9시경 읍내리 시장으로 가는 길목인 갈정리(葛井里) 고개에 나아가, 장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자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많은 시위군중이 이어 호응하여 장터를 행진하는 등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7·115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11·112면



이수욱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23) 이장희(李章熙)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7 ~ 1932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5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안장위치 등록중
  - 안장일 : 2021-06-10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에서 이수욱(李秀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정리의 만세시위는 이수욱이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因山)을 다녀온 뒤 3월 7일부터 유상억·윤상원(尹相元) 등과 함께 계획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들은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에 거사하기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 등을 제작·인쇄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13일에 이장희 등은 시장에 이르러 미리 연락하여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 행진하였다. 이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1·112면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57~1159면



이장희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24) 임대수(林大洙)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2~1911
- ❍ 운동계열 : 의병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국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안장위치 등록중
  - 안장일 : 1997-10-16

(2) 활동내용

충청남도 연기(燕岐)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고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간섭이 날로 심화되어 국운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임대수는 쇠퇴하여가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충남 일대에서 의거의 기치를 올려 19개군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대한제국군마저 일제의 책동에 의해 해산되기에 이르자 재거의하였다. 그는 5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여 은진(恩津) 일본 헌병 분견소를 습격하여 총기·탄약 및 서류 등을 탈취하였으며 구금 중인 애국지사들을 구출하였다.

그 이후 1907년 8월부터 1908년 2월까지 공주(公州)·천안(天安)을 비롯하여, 청양(靑陽)·당진(唐津)·보령(保寧) 등 충남 일대에서 활약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1911년 6월 공주에서 적과 교전하던 중 동지 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53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529~532면





임대수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25) 임덕문(林德文)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6 ~ 미상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7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연기군의 만세시위는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이수욱의 주도로 3월 13일 전의시장에서 시작되었다. 북면과 조치원은 3월 23일 인접한 청주에서 전개된 횃불만세운동에 호응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면에서는 3월 23일 인접 면민들과 함께 횃불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3월 31일에는 대대적인 횃불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진의리 김봉식(金鳳植), 월산리 임영복(林永福), 양화리 조의순(趙義淳)·임덕문은 이덕민의 집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오후 9시경 '대한국만세'를 부르며 양화리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임덕화(林德化)를 설득하여 아월산에서 주민 100여 명과 횃불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진의리로 이동하여 임영철(林營喆)을 설득하고 뒷산에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함께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시 송담리로 이동하였을 때, 이미 송

담리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어 함께 '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임덕문은 연기군 남면의 횃불독립만세운동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9. 4. 18)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8~21면

26) 임만수(林萬洙)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5~1949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9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5묘역—383
  - 안장일 : 2020-03-16

(2) 활동내용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全義面)에서는 1919년 3월 11일 첫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23일 조치원(鳥致院) 일대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4월 1일 남면 송담리에서 임희수(林姬洙)가 독립만세운동을 제안했다. 임만수는 임숙명(林淑明)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마을 주민에게 독립만세에 참가를 권유하여 약 30명이 집합하였다. 이어 주민들을 이끌고 마을의 서운산(瑞雲山)으로 올라갔다. 오후 9시경 임만수 등 주민들은 산 정상에서 불을 지피고 '대한독립만세'를 1시간 동안 외치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의 즉결처분으로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9. 4. 11)
신한민보(新韓民報)(1919. 6. 24).





임만수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27) 임숙명(林淑明)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4~1959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9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9년 3월 11일과 23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全義面)과 조치원(鳥致院)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1일 남면 송담리에서는 임희수(林姬洙)가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운동 준비가 진행되어 갔다. 임숙명은 임만수(林萬洙) 등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로 뜻을 모았다. 약 30명의 주민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서운산(瑞雲山)으로 올라갔다. 오후 9시경 임숙명 등 주민들은 산 정상에서 불을 피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숙명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의 즉결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9. 4. 11)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3권 115면.

28) 임영복(林永福)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74 ~ 1935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8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9년 3월 31일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각 동리에서는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방축리(方丑里)에서는 밤 8시경 약 30명이 황우산(黃牛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복통리(洑通里)에서도 밤 8시경 약 10명이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양화리(陽化里)·진의리(眞儀里)·송담리(松潭里)에서도 횃불시위가 일어났다. 진의리의 김봉식(金鳳植), 월산리(月山里)의 임영복, 양화리의 조의순(趙義淳)과 임덕문(林德文)은 이덕민(李德敏) 집에 모여 독립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주민 1백여 명과 함께 아월산(雅月山)에 올라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이들은 진의리 동리 뒷산에서 횃불시위를 벌이고 다시 송담리로 가서 횃불시위를 벌였다.
임영복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4. 18)
刑事事件簿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2~115면

29) 임우철(林優喆)



임우철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920 ~ 2021
- ❍ 운동계열 : 일본방면
- ❍ 포상년도 : 2001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6묘역—41
  - 안장일 : 2021-06-10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중농 가정에서 출생하여 연기공립보통학교(燕岐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36년 4월 대전공립공업전수학교(大田公立工業專修學校) 토목과에 입학하여 1939년 3월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에 고원(雇員)으로 채용되어 공사계(工事係)에서 근무하였다. 1941년 2월 경성토목출장소를 의원면직하고 일본으로 도항하여 동년 4월 동경(東京) 공옥사고등공업학교(攻玉社高等工業學校) 토목공학과 야간부에 입학하여 재학하면서 5월부터 주간에는 동경시 토목국 하천과 명석정힐소(明石町詰所)에 근무하였고, 12월부터는 동경시 토목국 건설과에 용인(庸人)으로 근무하였다. 동경 공옥사고등공업학교 입학 후 김명기(金明起)·금림좌목(金林佐穆)·금성응춘(金城應春) 등 동급생들과 함께 1942년 12월까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육군특별지원병제도(陸軍特別支援兵制度)를 이용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각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귀국하면 한국인만의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공업학교(工業學校)의 교원이 되어 청소년을 훌륭히 육성하는 한편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하며 궁성요배(宮城遙拜)는 불필요하다는 등 민족의식을 함양하다가 붙잡혀 1943년 12월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과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3. 12. 4)





임우철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0) 임헌규(林憲奎)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5~1954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2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 묘역 위치 : 안장위치 등록중
  - – 안장일 : 1994-11-16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연기군 금남면(錦南面) 대평리(大平里) 장날에 임병주(林炳周)·김봉식(金鳳植)·이덕주(李德周)·임순철(林筍喆)·임헌빈(林憲斌) 등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날 장터에 모인 수백명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행진하다가, 일경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가 되어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유가 되자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해 6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형사사건부
해동삼강실록 부사마편(1969. 1. 10간) 제1권 20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6면

3·1운동실록(이용락) 454·455면
포창문(연기향교, 공탄 2516. 8. 27 : 아들 임기수의 효자 포창문 중)



임헌규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1) 임헌상(林憲祥)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77~1959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8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9년 3월 31일 오후 8시경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각 동리에서 횃불이 올랐다. 방축리(方丑里)에서도 밤 8시경 동리 주민 약 30명이 황우산(黃牛山)에 올라 횃불을 놓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쉬도록 외쳤다.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임헌상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4. 14)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4면

32) 임희수(林熹洙)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7~1934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2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 묘역 위치 : 안장위치 등록중
  - – 안장일 : 2007-06-14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연기군 남면(南面) 송담리(松潭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임숙명(林淑明)·임만수(林萬洙)와 함께 이날밤 9시경에 서운산(瑞雲山)에서 주민 30여명을 규합,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19. 4. 11 공주지방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5면



임희수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3) 장기민(張基民)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7~1921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5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3묘역—813
  - – 안장일 : 2008-05-08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8일 충남 연기군 동면(東面) 송룡리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만세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던 상황에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각 면을 순회 강연하던 연기군수에 대하여, "한국 민족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면장의 제지를 받고 돌아온 그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홍진(張弘鎭)과 함께 3월 28일 저녁에 동네 주민들을 선도하여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인하여 1921년 2월 24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면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판결문(1919. 4. 7. 공주지방법원)



장기민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4) 장재규(張在圭)



장재규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2~1977
- ❍ 운동계열 : 국내항일
- ❍ 포상년도 : 2009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4묘역—139
  - 안장일 : 2009-09-17

(2) 활동내용

1915년 3월 12일 충남 연기(燕岐) 조치원 헌병분견소 헌병 야나기사와 도지로(柳澤藤次郎)가 민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재규와 친형 장재학(張在學)은 민적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들과 관계된 부분을 찢어서 소각하였다. 이로 인해 장재규는 체포되어 형은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후에도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나는 조선민족으로 일본국에 세금을 바칠 의무가 없다'고 일제의 납세정책에 반대하였다. 일제는 장재규의 집안 재산을 강제 압류했지만, 굴복하지 않자 1917년 1월 23일 형과 전남 지역의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騎驢隨筆(宋相燾) 225~226면
燕岐郡誌(燕岐郡誌編纂委員會, 1988) 988면
新韓民報(1917. 4. 26)





장재규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5) 장재학(張在學)



장재학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2~1919
- ❍ 운동계열 : 국내항일
- ❍ 포상년도 : 2005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3묘역—693
  - 안장일 : 2007-11-13

(2) 활동내용

일제의 민적조사와 납세정책에 저항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5년 3월 12일 충남 연기(燕岐) 조치원(鳥致院) 헌병분견소 소속 헌병 야나기사와 도지로[柳澤藤次郎]가 민적정리를 위해 동소에 비치된 민적부(民籍簿)를 가지고 민적조사를 시행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장재학은 '본인은 일본신민(日本臣民)이 아닌데 일본 관헌이 조선시대에 등록된 자신의 민적부를 소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민적부 중에서 본인에 관계된 일부분을 찢어서 소각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15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형법 제258조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6년 4월 출옥 후 일제 식민지지배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제의 납세정책에도 반대하였다. 일제가 그의 집안 재산을 강제 압류 집행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그가 굴복하지 않자 1917년 1월 23일 그와 아우 장재규, 장남 장화진을 전남 고흥의 거금도로 유배를 보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5. 4. 6)

判決文(高等法院, 1915. 6. 7)

新韓民報(1917. 4. 26)

騎驢隨筆(宋相燾, 1955) 225·226면

鏡菴張先生行蹟(結城張氏世德錄)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5. 5. 5)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1권 151면





장재학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6) 장홍진(張弘鎭)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9~1938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2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연기군 동면(東面) 사무소에서 출장나온 연기 군수의 시국을 무마하려는 순회 강연이 열리자 '조선사람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을 표고 돌아오는 길에, 이날 밤 장기민(張基民)과 함께 횃불을 놓고 1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주동자로서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1919. 4. 7 공주지방법원)
매일신보(1919. 3. 3, 4. 20)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면
3.1운동비사(이병헌) 892면





장홍진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7) 장화진(張和鎭)



장화진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9 ~ 1974
- ❍ 운동계열 : 국내항일
- ❍ 포상년도 : 2006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안장위치 등록중
  - 안장일 : 2008-04-16

(2) 활동내용

1910년대 말 납세를 거부하며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다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당했다. 장화진은 1917년 부친과 숙부가 납세거부 등으로 유배되자, 일본 헌병은 그에게 "너의 아버지는 호적과 납세를 하지 않아 쫓겨났다. 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생업에 힘쓰고 법을 어기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에 그는 크게 꾸짖어 이르기를 "아버지를 사지에 두고 그 아들에게 안업(安業)을 권장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말의 순서와 뼈대[倫脊]가 없으니 오랑캐를 면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였다. 헌병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 보며, 미친 놈이라 하고 돌려보냈다. 장화진은 1917년 2월 27일 우편법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법정 출두 호출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동년 3월 3일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원을 받았다. 다시 3월 3일에 발송된 우편물 역시 수취를 거부하여 1917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법 위반으로 벌금 1원 95전[(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4일간 노역)]을 받았다. 1917년 3월 26일 연기군청에서 또 다시 보낸 우편물의 수취 거부를 계속하고 호적입적과 납세를 거부하며 일제 통치에 항거하다가 1917년 4월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배 1년을 받아 제주도로 귀양가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祭張義士在學文(艮齋 田愚,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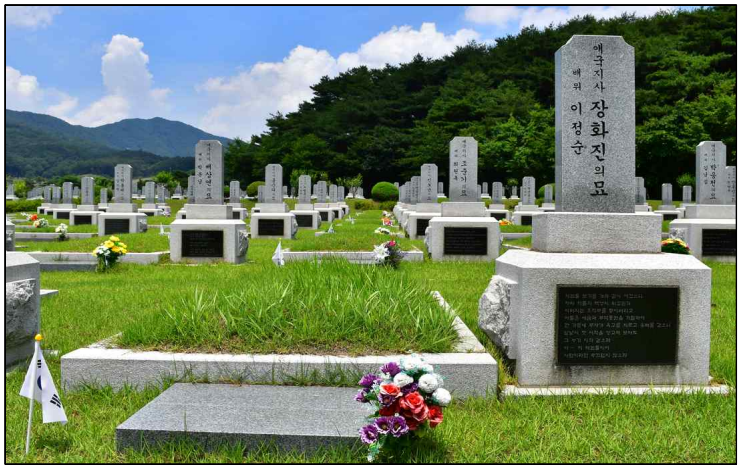
鏡菴張先生行蹟(結城張氏世德錄)

鄒雲實記(孟義燮 編, 1972) 52면

騎驢隨筆(宋相燾, 1955) 225·226면

新韓民報(1917. 4. 26, 6. 7)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3. 3)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3. 30)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7. 4. 21)
義士 鏡菴 張公 墓誌銘(西河 任憲瓚, 1952)





장화진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38) 정상복(鄭相福)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9~1946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4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9년 3월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시장(全義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보고 돌아온 이수욱(李秀郁)은 추경춘(秋敬春)·추득천(秋得天)·윤자훈(尹滋勳)·윤자벽(尹滋壁)·윤상원(尹相元)·윤상억(尹相億)·김재주(金在周) 등과 회합하고, 3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全義面) 읍내리(邑內里)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수욱은 태극기 약 150본을 만들어 13일 오전 9시경 시장 통로인 갈정리(葛井里) 언덕에서 배포하고, 시장에 도착해 "내가 독립에 관하여 연설을 행할 시 일제히 국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고창하며 읍내를 순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13일 오후, 시장에 도착한 군중에게 독립에 관한 연설과 독립만세를 주창하였다. 정상복은 옷 속에 은닉하여 둔 태극기를 꺼내어 군중과 화답하며 만세를 고창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4. 9)
刑事事件簿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每日申報(1919. 4. 20)
3·1運動時被殺者名簿(국가기록원 소장, 1953)

39) 정원필(鄭元弼)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74~1938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06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리 전의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1919년 3월 8일 정원필은 서울에서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에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귀향한 전의면 신정리(新井里)에 거주하는 이수욱(李秀郁)과 3월 13일 장날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미리 제작하여 거사 당일 시장 통로인 갈정동(葛井洞) 고개에서 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시장에 이르러 이수욱이 연설을 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꺼내어 휘두르며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각지를 행진하였다. 정원필은 옷 속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군중들과 함께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1919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1~112면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9)

40) 정정화(鄭靖和)



정정화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900 ~ 1991
- ❍ 운동계열 : 중국방면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시부(媤父)인 대동단(大同團) 총재 김가진(金嘉鎭)을 따라 1919년 3·1독립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갔다.

정정화는 1930년까지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6회에 걸쳐서 국내를 왕복하면서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1932년에는 윤봉길(尹奉吉)의 상해(上海) 홍구공원(虹口公園) 의거 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가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녕(李東寧) 김 구(金九) 엄항섭(嚴恒燮) 등과 함께 이동하여 임시정부를 도왔다. 1934년에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에 입당하여 활동하였으며, 1940년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창당요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1940년에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조직하고 그 간부로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41년에는 임시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중경(重慶) 3 1유치원(幼稚園)의 교사로 임명되어 독립운동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43년 2월 23일에는 중경(重慶)에 있는 임시정부 산하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의 재건조직에 참여하여 훈련부장에 선출되었으며, 국내외 한인 부녀의 총단결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에 있는 동포여성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혹은 위문 금품을 거두어 일선에 있는 독립군을 위문하며, 혹은 적진 중에 끼어 있다가 포로수용소를 통하여 넘어오는 동포 여성들을 계몽 교육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또 전란과 병고로 고생하는 동포들을 찾아 정성어린 위문과 부조로 천애이역(天涯異域)에서 동포애의 꽃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멀리는 미주 한국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재미(在美) 각계 동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성원을 두터이 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3권 494 613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03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315면

*참고사항
2001년 0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41) 조의순(趙義淳)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74 ~ 미상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2010
- ❍ 포상훈격 : 건국포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 묘역 위치 : 확인필요
  - – 안장일 : 확인필요

(2) 활동내용

충남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양화리(陽化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조의순은 임덕문(林德文)과 함께 이덕민(李德敏)의 집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31일 밤 9시경 조의순 등은 주민들과 규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양화리에 도착하였다. 양화리에서 임덕화(林德化)를 앞세워 양화리 주민 100여 명과 마을 뒤산 아월산(雅月山)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후 다시 진의리(眞儀里)로 행진하여 그 마을 박영철(朴營喆)을 앞세워 그 마을사람들과 동리 뒷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다시 송담리(松潭里)로 가서 이미 시위가 벌어진 대열에 동참하여 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붙잡힌 조의순은 1919년 4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4면
判決文(公州地方法院 : 1919. 4. 18)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42) 조태화(趙泰和)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68~1934
- ❍ 운동계열 : 미주방면
- ❍ 포상년도 : 2016
-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17년부터 1924년까지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메리다지방회(美利多地方會) 회원, 산타페지방회 법무, 마나티지방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1917년 멕시코에서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산타페로 이주하였다. 1920년 9월 산타페지방회 총무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1년 3월 초 메리다의 한인 95명과 푸에르토 멕시코와 푸론테라의 한인 67명 등 193명이 쿠바로 이주할 때, 이 대열에 합류하여 쿠바 마나티로 건너갔다. 쿠바 마나티에서 지방회를 조직하고 총무로 선임되었으며, 1922년 회장이 되었다. 그 후 마나티 부근 마탄사스로 이주하여 1922년 10월 마탄사스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곧 마타니로 돌아와 1923년 5월까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2월 마나티지방회 회장 구준식이 사임하자,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에 재정 후원을 하였다.
1917년부터 1924년까지 국민의무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在美不逞鮮人의 발행한 歐美委員部 통신에 관한 건(1924. 8. 1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米(7)
新韓民報(1917. 11. 1, 1918. 1. 24, 11. 14, 1921. 11. 17, 1922. 10. 19, 1923. 1. 18, 2. 1, 3. 8, 3. 15, 4. 26, 6. 21, 1924. 2. 28, 3. 13, 4. 3, 4. 17)
안창호 초빙을 위해 멕시코 지방총회 동포에게 반포한 글 및 여비출연 명단(1917. 4. 1, 독립기념관 소장)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제7권 376, 400면, 제12권 514면, 제13권 83, 575, 579, 581, 582, 587, 597, 608, 610면, 제17권 294, 342면

43) 추경춘(秋敬春)



추경춘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89~1940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2묘역-592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全義面 新井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동리 주민 이수욱(李秀郁)은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에 참예하고자 상경하였다가 3·1독립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3월 6일 귀향하여 그를 찾아왔다.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13일 전의(全義) 장날 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목판으로 태극기 약 150매를 찍어내어 당일에 이를 숨겨가지고 장터의 통로인 갈정리(葛井里) 고개에서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뒤에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연설을 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였고 장꾼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이어서 장터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때 그는 주동자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5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判決文(1919. 4. 9 公州地方法院)

判決文(1919. 5. 9 京城覆審法院)

判決文(1919. 6. 7 高等法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57~1159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11面





추경춘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44) 추득천(秋得千)



추득천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95~1953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없음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7일 밤에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신정리(新井里) 박성교(朴聖敎)의 집에서 이수욱(李秀郁)·추경춘(秋敬春) 등과 같이 전의면(全義面) 사람들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太極旗)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13일 오전 전의(全義) 장날에 운집한 면민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9일에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동년 5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동년 6월 7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

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11·11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7~1159면

45) 홍일섭(洪日燮)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878~1935
- ❍ 운동계열 : 3.1운동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3묘역ㅡ888
  - 안장일 : 2008-06-23

(2) 활동내용

충청남도 연기(燕岐)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조치원(鳥致院)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날 아침 미리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꾼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역설하여 수백명을 모으고, 정오경 시위군중의 앞에 나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군중과 함께 장터를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70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27·173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6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0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15·116면





홍일섭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46) 황갑수(黃甲秀), 황인덕(黃仁德) (이명)



황갑수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921~2009
- ❍ 운동계열 : 광복군
- ❍ 포상년도 : 1990
- ❍ 포상훈격 : 애족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
  - 묘역 위치 : 독립유공자 4묘역—131
  - 안장일 : 2008-06-23

(2) 활동내용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중국 호남성(湖南省)에서 일본군을 탈출하여 여성지구(汝城地區) 중국군 유격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가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36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449·451·452·620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865면





황갑수의 묘소전경(좌)과 묘비 후면(우)

47)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가네코 후미코

(1) 인물개요

- ❍ 생몰년 : 1903~1926
- ❍ 운동계열 : 독립운동지원
- ❍ 포상년도 : 2018
- ❍ 포상훈격 : 애국장
-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여부 : 해당없음

(2) 활동내용

1922년 2월부터 박열과 의기투합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5월 경 흑도회에 가입했고 7월부터는 박열과 함께 기관지 『흑도』의 발간책임을 맡았다. 9월에는 흑우회를 조직해 사상연구와 연설회 등을 추진하면서 기관지 『민중운동(民衆運動)』을 한글로 발행하였다. 12월에는 『후토이센진』을 창간했고, 1923년 3월 『현사회』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1923년 4월 무정부주의 운동가들을 규합하여 불령사를 조직하였다. 불령사는 한국 내 형평운동을 지지하는 한편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무정부주의에 입각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즈음 의열단과 함께 의열투쟁을 추진했는데, 폭탄을 도쿄로 반입하여 일왕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1923년 9월 도쿄대지진 직후 보호감속 명목으로 도쿄 세타가야(世田谷)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취조 도중 폭탄 반입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이른바 '대역사건'의 주모자가 되었다. 구금 중 박열과 결혼하고 일제 사법당국을 향해 항일 활동을 떳떳하게 항변했으며 재판 중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1926년 3월 25일 대심원 제1특별형사부에서 이른바 '형법 제73조(大逆罪) 및 폭발물취체규칙위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4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문조서(訊問調書)(동경지방재판소, 1923. 10. 25, 1924. 1. 24, 1. 25, 3. 31, 5. 14)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1925. 7. 7)
예심청구서(豫審請求書)(1925. 7. 17)
판결문(判決文)(대심원 제1특별형사부, 1926. 3. 25)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8. 4, 12. 20, 1926. 3. 1, 4. 21, 4. 24)
시대일보(時代日報)(1925. 11. 25)